

총학생회선거 투표율 미달 무산

3월 보궐선거 실시 ... 학생회사업 차질 예상

제35대 총학생회 선거가 사상 처음으로 투표율 미달로 무산됐다. 지난 12일부터 3일간 진행된 총학생회 선거 결과 투표율 48.87%를 기록해 선거 시행세칙상 선거 성사 인원인 전체 유권자 과반수에 133표 못 미쳤다. 특히 이과대, 공과대의 경우 각각 27.6%, 29.89%의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정석중·수거4. 이하 중선위)는 지난 14일 밤 대책회의를 열어 연장선거에 대해 논의했지만 선거시행세칙 제46조에 따라 내년 3월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중선위와 유영

빈·이상현 선거운동본부는 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매년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자체 평가했다. 중선위의 한 관계자는 "특히 지난해의 경우 총학생회 선거가 경선으로 치러진 데 반해 올해는 단독선거로 진행돼 더욱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 힘들었다"고 분석했다. 다른 해에 비해 선거에 대한 비방이 많았던 것도 학생들이 선거를 외면하게 된 이유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선거운동 전 본교 홈페이지 '나 의주장'에 중선위에 대한 비방 글

이 올랐고, 투표참여를 호소하는 후보들을 '호객행위'로 매도하는 대자보가 붙기도 했다. 앞으로 차기 총학생회는 회칙에 따라 총대의원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총대의원장은 총학생회운영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소집하는 권한을 갖게 되며 이 자리에서 총학생회운영위원회 중 한 명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해 총학생회장의 권한대행을 부여한다. 하지만 상황이 이러한 만큼 학생회 사업은 당분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현재 진행되

고 있는 등학협 구성 등 등록금 협의, 내년 초 진행되는 새내기 새로 배움터 등의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양희창(반도체4) 부총학생회장은 "비대위의 경우 상대적으로 영향력을 갖기 힘들어 등록금 협의 등 학생회 사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학생회 사업 정상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비대위가 소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후보 등록을 마친 8개 단과대는 모두 당선됐다. >관련기사 2면(보도) 김진성 기자 yeam@dongguk.edu

15대 총장선거 오는 20일

교수회·직원노조 각각 재단에 2인 추천

제15대 총장후보 추천 선거가 오는 20일 교수회와 직원노조 별도로 실시된다. 서울·경주캠퍼스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교수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한 4명의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교수회와 직원노조는 각각 이날 선출된 2인을 다음날(21일) 재단이사회에 15대 총장후보로 추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진철(정치외교학) 선거관리위원장은 "총장직선제에 대한 학내 주체들의 관심이 고조된 만큼 직선제를 통해 선출된 후보가 총장으로 선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수회(회장=박종훈·윤리문화)는 오전 11시부터 본관 중

강당에서 선거를 진행한다. 이번 선거는 1차 투표를 통해 다득표자 3인을 선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진행해 한 후보자가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을 경우 2위를 차지한 후보자와 함께 재단에 추천된다. 그러나 2차 투표에서 한 후보도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 3차 투표를 진행해 2인을 추천한다. 이에 앞서 투표 30분전에는 서울 캠퍼스 본관 중강당에서 각 후보자들의 소견발표가 진행되며 투표는 서울·경주캠퍼스를 비롯해 본교 부속병원 5곳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직원노조(지부장=강형석)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본관 직원노조 사무실에서 선거를

실시하며 1차에서 최다득표한 2인을 재단에 추천한다. 개표 결과는 교수회·직원노조가 같은 시간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규환 직원노조 사무국장은 "교수회와 서로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캠퍼스 교수회와 직원노조는 총장선거와 함께 경주캠퍼스 부총장 후보 선출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총장 선거는 현재 입후보한 3명의 교수를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해 득표 순위에 따라 2인의 후보를 선출하여 차기총장에게 추천할 계획이다. 조슬기 기자 chof56@dongguk.edu

내년부터 연구년교수 확대

전체 전임교원 10%로

내년부터 연구년교수 선정인원이 확대된다. 연구처(처장=최순열·국어교육) 연구개발팀은 올해부터 연구년 교수 선발인원이 연간 전체 전임교원의 5%이내에서 10%로 확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선정한다. 또한 매학기 나누어 선발하던 방식을 변경해 1년에 한번 선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연구개발팀 한 관계자는 "연구년 신청 교원에 비해 선발할 수 있는 인원이 적어 확대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교수노조 창립 1주년

토론회 등 다양한 행사 진행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황상익·서울대 의학, 이하 교수노조)이 지난 10일 창립 1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이에 지난 9일 교수노조는 서울대 법과대학 1백주년기념관에서 '대학의 위기와 교원운동의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 후, 창립 1주년 기념식과 함께 '해직교수의 밤' 행사를 진행했다.



분노한 농심 ...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정현찬) 주최로 지난 13일 7만여 농민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의 살 지키기 전국농민대회'가 여의도 한강둔치에서 열렸다. 이날 농민들은 쌀개방 저지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반대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관련기사 4면(사회) snail11@dongguk.edu

자 1천 411명 중 335명이 투표해 23.74%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기호 1번 신·남궁 조는 기호 2번 배근호(정치학과 석사과정)·유철주(사회학과 석사과정) 조에 40표 앞선 175표(58.62%)를 득표해 선출됐다.

원충, 신병삼·남궁선 조 당선

제19대 대학원 총학생회 선거 결과 기호 1번 신병삼(불교학과 박사과정)·남궁선(불교학과 박사과정) 조가 당선됐다. 지난 11일부터 3일간 진행된 대학원 총학생회 선거 결과 총 유권

“부재자 투표 신청하세요” 오는 21일까지 중도·동국관 접수

본교 총학생회(회장=주진완·국교4)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부재자 투표 신청을 받는다. 희망자는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중앙도서관 입구와 동국관 3층 로비에서 신청하면 된다. 학내 신청자가 2천명을 넘을 경우 중구청에 학내 투표소 설치를 제안할 수 있어 대학생 부재자의 투표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본교에서 부재자 투표를 신청한 학생은 150여명이다. 이와 관련해 주진완 총학생회장은 "부재자 투표의 경우 다음달 12일부터 3일간 진행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일인 다음달 19일 사정상 투표를 할 수 없는 학생도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부재자 투표 운동은 지난 97년 대통령 선거에서 대학생 부재자 유권자 중 약 93%가 투표를 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촉발된 것이며, 얼마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대학농구연맹전 출전 오는 21일 건국대와 첫경기

본교 농구부(감독=최성오)가 오는 21일부터 9일간 '제39회 전국대학농구연맹전' 남자 대학1부에 출전한다.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 본교는 △중앙대 △단국대 △한양대 △건국대와 함께 B조로 편성돼 오는 21일 오후 3시30분 건국대와 첫 경기를 갖는다. 남자 대학1부 예선은 오는 21일부터 5일간 조별리그로 진행되며 결선리그는 각 조의 상위 3팀이 출전한다.

인도철학회 국제학술대회 '세계화시대 인도철학...'

제15회 인도철학회 국제학술발표대회가 오늘(18일)과 내일 다량관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세계화시대 인도철학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불교의 관점에서 보는 체식주의 스푸루샤 찬가:우주적 존재의 고뇌와 회열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생활참선 건강법 대법회 히말라야 등반자 강연

명사초청법회가 내일(19일) 오후 4시 정각원에서 열린다. 이번 법회는 최고령 히말라야 등반 기네스북 기록 보유자인 한국등보개발연구원장 박희선 씨가 '생활참선 건강법이란' 주제로 강연한다.

8월 졸업생 취업을 발표

2002학년도 8월 졸업생 취업률이 발표됐다. 학생처(처장=김용기·수학교육) 취업지원팀은 지난 8월 본교를 졸업한 학생 523명 중 순수 취업한 학생이 전체 졸업생의 71%이며, 대학원 진학 등을 포함한 진로를 결정한 학생은 78.6%로 발표했다.

본사사령
◇ 임수습기자
▲ 임창구(상경대1)
- 이상 11월 18일자

보리소

여론의 힘

'정치(政治)'란 단어를 사전에서는 '사회집단이 권력을 매개로 하여 여론을 집약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권력을 가진 집단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여론을 중요시한다. 그에 따른 행위라야 사회가 적절한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일 것이다. 15일 늦은 밤 많은 국민들은 밤잠을 설치다. 12월 대선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후보단일화 성사 여부를 지켜보

위해서였다. 특정 후보에 대한 개인적인 지지여부와 관계없이 여론은 단일화에 큰 관심을 보였다. 단일화가 안될 경우 심각한 계도 게임이 끝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었다. 여론은 지지부진했던 단일화 논의의 불포를 뜨는 데 다시 한 묶음을 했다. '연합뉴스'는 네티즌의 91%가 단일화는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도했다. 심야회동은 이같은 여론을 그대로 반영

했다. 이해가 첨예하게 맞물린 사안이었지만 두 후보는 국민여론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대타협을 이뤄낸 것이다. 회담 직후 두 후보는 "절대 다수 국민의 생각대로 승리를 이끌기 위해 마음을 비웠다"며 "우리 운명은 이제 우리들의 손을 떠나 국민의 손으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여기서 '백유경'의 모습이 생각난다. "어떤 뱀의 꼬리가 머리를 향해 말했다. '내가 먼저 가야 해.' 머리가 꼬리에게 말

했다. '지금껏 졸곧 내가 먼저 갔어. 이제 와서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는 머리가 먼저 가려 하자, 꼬리가 나무를 휘감아 앞으로 나갈 수 없었다. 그래서 꼬리의 주장대로 먼저 가게 했더니 곧 불 속에 떨어져 뱀은 죽고 말았다." 무분별한 경쟁의 끝은 파멸이라는 진리를 두 사람은 알고 있었으나보다. 역시 여론은 무섭다. 최승천 천태종보 취재부장

당신의 지성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발전기금 060-700-0119

지면안내

학술상·문학상 작품 모집

제40회 동대 학술상
■ 모집분야 : 인문과학상, 사회과학상, 자연과학상
■ 응모요령 : 3개분야 모두 20자 원고지 6매 내외의 학술논문
■ 시상 : 인문과학상 - 정원 50만원 가작 25만원
 사회과학상 - 정원 50만원 가작 25만원
 자연과학상 - 정원 50만원 가작 25만원

제17회 동대 문학상
■ 모집분야 : 시부, 소설부, 희곡·시나리오부
■ 응모요령 : 시부문 - 3면 내외 소설부문 -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 희곡·시나리오부문 -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
■ 시상 : 시 부 - 정원 30만원, 가작 15만원 소설부 - 정원 50만원 가작 25만원 희곡·시나리오부 - 정원 50만원 가작 25만원

▶ 응모자격 : 본교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 제출기간 : 2002년 11월 11일 ~ 29일까지

▶ 심사위원 : 응모작품에 따라 추후 별도 위촉
▶ 입상발표 : 2003년 1월 1일자 동대신문 지상

5면 총장선거 후보자 서면 인터뷰

지난 6일 진행된 총장 후보 추천선거 합동 유세 내용을 바탕으로 각 후보자에게 공통질문을 던져 학내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았다.

4면 노동자·농민대회 풍경

지난 10일, 13일 열린 노동자대회와 농민대회를 살펴본다.

8면 전용극장의 막이 오른다

최근 유행처럼 늘고 있는 전용극장의 이모저모를 알아본다.

동대신문사

도서신관 준공식 다음달 3일 확정

공간배치위 구성돼 중도 1층 배치 논의 ... 법대 점거농성 철회



지난 12일 법대 학생회는 '릴레이 3천배'를 진행했다.

도서신관(가칭) 준공식이 다음달 3일로 확정됐다. 지난해 5월 착공한 도서신관은 현재 외부 조경 공사만 남은 상태며 오늘(18일) 중구청에 건물사용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지하3층 지상3층으로 설계된 도서신관은 △지하3층=주차장 △지하2층=자연과학자료실 △지하1층=사회과학자료실 △1층=불교학자료실, 인문과학자료실 △2층=행정사무실, 멀티미디어실 △3층=열람실로 사용된다. 중앙도서관에 있는 열람실, 서고 등은 다음달 6일부터 이전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리모델링 후 중앙도서관

관(이하 중도) 1층 공간배치를 결정하기 위해 '공간배치위원회(위원장=정용길·정치외교학, 이하 위원회)'가 구성돼 중도 공간배치에 대한 논의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송석구 총장이 지난 6일 교무위원회 회의에서 임기내에 리모델링 후 중도 1층 공간배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혀 위원회가 구성됐다"며 "현실적으로 중도 1층 공간에 가장 적합한 사용용도를 결정해 조속히 마무리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리모델링 후 중도 1층 이전을 요구하며 도서신관을 점거했던 법대 학생회(회장=

김문진·법4)는 위원회 구성이 결정된 지난 6일 점거농성을 철회하고 지난 12일 불상 앞에서 '공간 확보를 위한 릴레이 3천배'를 진행했다. 이어 지난 13일 비상총회를 열어 '법대 공간투쟁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앞으로도 학교측에 중도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리모델링 후 중도 1층 공간분쟁은 법대 학생회의 점거농성으로 학내 주체들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빠른 시일 안에 공간배치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우석 기자 kauri21@dongguk.edu



푸른 눈의 스님 ...

만행-하버드에서 화제사까지'의 저자 현각스님 초청 강연회가 지난 13일 본관 중강당에서 열렸다. '철다른 종교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강연회에서 현각스님은 자아발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최우석 기자 kauri21@dongguk.edu

회전무대

행방불명

O...얼마전 교원 임용 시험에 지원한 몇몇 사범대생은 헛걸음을 해야했다는데.

알아보니 본교 졸업예정증명서에 부·복수전공 확인란이 없는 것을 뒤늦게 알고 재발급 받기 위해 다시 학교에 가야 했기 때문이라고.

새로운 형식의 증명서를 미리 준비·발급했다더라 학생들의 불편을 덜 수 있지 않았을런지.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본교에서 선생님 되는 법=이론공부+체력 단련(!)"

다용도 소화기

O...지난 10일 대학로에서 열린 노동자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경찰의 새로운 진압무기를 보고 당혹스러워했다.

이유인즉 일부 경찰이 행진 중인 시위대에게 소화기를 뿌렸기 때문이라고.

화재 발생에 대비해 지니고 다니는 휴대용 소화기를 시위집압에 이용하고 있으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다용도 소화기 구입하실 분은 경찰서에 문의하세요."

우격다짐

O...지난 선거기간동안 학내 곳곳에 특이한 대자보가 붙어 학생들이 의아해 했다는데.

후보자들의 투표참여 호소를 호객 행위에 비유하며 시행세칙 위반이라고 매도했기 때문이라고.

선거시행세칙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한 선거 운동을 비방하는 것은 선거분위기를 흐리는 행위가 아닐런지.

이에 대자보를 붙이던 한 학생 왈. "표에 굽주린 후보자들이여, 네 얼굴에 침을 뱉으며"

조리회관

O...얼마 전 학생회관에는 음식냄새가 진동해 해 학생들이 균침을 흘려야 했다는데.

이유인즉 몇몇 동아리가 학생회관에서 금지돼있는 취사행위를 했기 때문이라고.

이는 화재의 위험을 수반할 뿐 아니라 다른 동아리 활동에도 지장을 주는 것이니.

이에 동아리방에서 취사를 하고 있던 한 학생 왈. "학내 음식물 반입이 금지라면 우리는 직접 조리를 하겠다(!)"

8개 단과대 학생회 건설

사과대 기호 을 오원기·김종연 조 당선

2002학년도 학생회 선거 결과 등록한 모든 단과대 학생회가 건설됐다.

사과대 경선으로 진행된 사과대 학생회 선거는 을 후보인 오원기(정외3)·김종연(사회3) 조가 갑 후보인 김홍규(정외2)·황재웅(정외2) 조와 76표 차이로 앞서 당선됐다.

불교대 김동국(선3)·조우영(불교3) 조가 73.50%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찬성 181표(98.40%), 반대 3표(1.60%)로 불교

이과대 장진욱(통계3)·이효선(화학2) 조가 53.33%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찬성 407표(90.65%), 반대 30표(6.68%)로 이과대 정·부학생회장으로 당선.

법과대 조천호(법2) 후보가 54.80%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찬성 205표(88.40%), 반대 26표(11.20%)로 법과대 학생회장으로 당선.

경영대 김준호(정보관리3) 후보가 45.17%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찬성 567표(92.30%), 반대 44표(7.00%)로 경영대 학생회

사범대 이소효(국교3) 후보가 78.50%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찬성 745표(93.20%), 반대 40표(5.00%)로 사범대 학생회장으로 당선.

정산대 서윤지(멀티미디어2) 후보가 51.30%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찬성 542표(92.10%), 반대 38표(6.40%)로 정산대 학생회장으로 당선.

야간강좌 구자룡(영문3)·김재훈(경영2)조가 53.10%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찬성 731표(91.80%), 반대 50표(6.00%)로 야간강좌 정·부총학생회장으로 당선.

성적우수장학 신청

내년 1학기 성적우수장학 신청이 오늘(18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신청대상은 이번 학기 평점이 3.0이상이고 다른 장학금을 받지 않는 재학생이며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장학금신청서(본교 홈페이지와 교학과에서 배부) △재산세·과세 증명서 △사회봉사인증서 학업지도교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겨울학기 참사람봉사단원 모집

참사람봉사단(단장=김용기·수학교육)이 다음달 4일부터 3일간 겨울학기 사회봉사 단원을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된 사회봉사단원은 육수종합사회복지관, 서부장애인복지관 등 130여개 기관에서 활동할 예정이며 기간 중 33시간 이상 활동하는 단원에게는 봉사학점 1학점이 인정된다.

겨울학기 봉사단원은 다음달 14일 한사랑 마을과 향림원에서 현장체험 학습을 마친 후 활동을 시작한다.

'e-비즈니스...' 세미나

내일 원흥관 강당에서 열려 '외부인사 초청 세미나'가 내일(19일) 오후 4시30분부터 원흥관 강당에서 'e-비즈니스와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현대정보기술 전문 이영희씨의 강연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산업시스템공학부에서 주최했다. 본교 재학생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전공변경 신청 접수

전공변경 신청이 오늘부터 5일간 진행된다. 신청대상은 평점평균 2.5 이상인 4학기 이상 수료자이며, 허용범위는 각 과별로 2001학년도 입학정원의 50%(사범계열 20%)이다. 또한 예체능계 지원자는 실기시험을 치러야 한다. 원하는 학생은 희망 학과 교학과에 신청하면 된다.

2002학년도 1차 전공결정 신청

오는 25일부터 5일간 본교 홈페이지

1학년 재학생의 1차 전공결정 신청이 오는 25일부터 5일간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단과대별 전공결정 시기는 △1회=문과대 이과대 공과대 정보산업대학이며 △2회=불교대 사회과학대 경영대 생명자원과학대이다. 단, △불교대 △사회과학대 △경영대는 평균평점 2.5이상으로 신청자격이 제한된다. 전공 배정은 1학년 1·2학기 성

적과 계열학기 성적을 합산한 누계 평점평균을 비교 적용하며, 동점자의 경우 △1기준=누계 평점 평균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비교 △2기준=평점평균이 동일한 자 중 총 취득학점이 많은 자이며 두 가지기준에도 동점자일 경우 같은 순위로 처리한다. 전공배정 결과는 내년 2월 14일 발표할 예정이며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2002 동국대 출판부 신간안내

Http://home.dgu.ac.kr/~book/index.html Tel. 02)2260-3483~4 Fax. 02)2268-7851



금강삼매경론(상·하)
조용길·정통규 옮김
상 : 474면 / 17,000원
하 : 573면 / 20,000원
중국 남북조시대에서 당(唐)나라 초기까지 중국불교에서 제기된 모든 교리를 다루고 있다.



현대영미시감상 (I·II)
이창배 저 / 538면 / 19,000원
II : 492면 / 18,000원
20세기 백년간의 영미시의 전개와 그 빛나는 업적을 한눈에 조감할 수 있다. 제I권은 영국편, 제II권은 미국편에 해당된다.



W.B.에이즈 시연구
이창배 저 / 498면 / 18,000원
1923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W.B.에이즈는 T.S.엘리엇과 더불어 20세기 최고의 영미시인



법화·천태사상연구
리영자 저 / 469면 / 16,000원
이 책은 모두 세 장으로 구성되어 천태사상의 발생에서부터 우리나라 천태사상의 전개까지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불교와 종교철학
김용표 저 / 385면 / 15,000원
종교의 철학적 제 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통하여 불교를 보편적 조망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모색을 시도한 연구



유문사친
구병수·이동원 옮김
619면 / 25,000원
유문사친(儒門事親)은 금원사대가의 일가로서 한·토·하 3법의 치료법을 주장한 장자화 선생의 저술



전통한의학의 뿌리를 찾아서...
강병수 저 / 377면 / 22,000원
한의학 속에 재미있었던 일, 잊혀지지 않는 일, 후학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속에는 전통한의학의 사연들이 담겨져 있다.



한국민간신앙과 문학연구
오출세 저 / 415면 / 19,000원
민간신앙을 자료로 하여 한국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문학과 연관시켜 성찰하는데 주력



성 역사와 문화
정태섭의 공저 / 420면 / 10,500원
한국과 동·서양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성 인식과 자료들을 모아 체계적인 논점으로 엮음



지형학
김주환 저 / 1087면 / 55,000원
전체를 대략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전 부분에서는 구조지형학분야, 후반부에서는 기후지형학분야를 정리



한국불교전서전집
한국불교전서 편찬위원회 / 각권 80,000원
삼국시대부터 구한말까지 불교계의 고승석대, 명현학자들이 남긴 옛 문헌들을 발굴 수집하여 전 13책으로 출간한 한국불교관계 학술자료의 대총서



연행록 전집
임기중 편 / 전10권 / 4,000,000원
조선시대 사신들이 연경(북경)을 내왕하면서 보고 들은 것들을 기록한 기행문. 이들 기록은 한·중 외교사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정치·경제·사회·학술·문화 등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다양하고 방대한 기록 유산이다.



- ① 교육분야
- ② 연구분야
- ③ 경영분야
- ④ 재단과의 관계·학내민주화
- ⑤ 간담회·차기 총장에게 바란다.

송석구 총장의 임기가 내년 2월로 마무리된다. 지난 94년 교수·직원들의 투표를 통해 재단에 추천된 송 총장은 8년 재단의 연임결정을 거쳐 8년 동안 불교병의 건립추진, 학부제 도입, 행정조직 개편 등 많은 변화를 주도했다. 본사는 총 5회에 걸쳐 송 총장 재임 8년을 분야별로 평가해 차기 총장에게 남겨진 과제를 알아본다. 편집자

의욕적 사업추진 속 학내 민주화 '소홀'

위원회 "의견 수렴 안된다" ... 다양한 구성원 참여 보장

송석구 총장이 재임한 지난 8년은 한마디로 '동국의 격동기'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학부제 도입, 불교병원·제3캠퍼스 건립, 팀제 도입... 학제 개편뿐만 아니라 행정·경영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대대적인 개혁을 시도했으며 전반적으로 "소신이다" "추진력 있다" 등의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학내민주화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는 물음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불교병원 등과 같이 학내 큰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이 잘 되지 않아 학내 민주화의 원인이 됐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가 지난 97년 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학교 발전을 위한 학내 주체들과의 관계에 대해 "대화가 중요하다. 동국발전을 위해서 일년에 두 세 번은 자리를 같이해 토론토 하고 의견을 모아야 하는데"라고 한 것은 이런 면에서 의미심장하다.

송 총장은 98년 총장특강이라는 형식으로 한 학기 동안 직원을 상대로 학교 발전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갖기도 하고, 학내 재주체들이 참여하는 대학운영 위원회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적도 있다.

학내 의견수렴 소홀

현재 본교는 각급 처·실장과 학장 등이 참석하는 교무위원회를 비롯해 20여 개의 소위원회가 구성돼 심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 중 소위원회는 교수뿐만 아니라 해당 사안과 관련된 실무직원까지 참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기구가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대학본부의 한 직원은 "소위원회가 많지만 결국 몇 명의 위원들에 의해 결정되고 나머지 구성원들에게 통보되는 유명 무실한 존재"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위원회 구성을 보면 각 부서의 실·

처장이 겸직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평교수나 학생 대표가 참여하는 위원회는 찾아볼 수 없다. 즉, 현재 위원회의 구성은 학내의견을 수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양희창(반도체4) 부총학생회장은 "학제개편과 같이 학생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안일 경우 학생의 참여를 보장해 학사일정 15주 단축 반복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인사처의 한 관계자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통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학부제 도입 또는 불교종합병원 건립 초기 학교측은 2~3차례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학내 주체들은 "일반적으로 정책이나 사실을 통보하는 자리이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과정은 아니다"라며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

이는 공청회 때 제기된 우려들이 현실화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학부제 도입으로 인한 기초학문 붕괴, 병원건립 재원 마련 계획 미비 등은 시행 초기 우려한 부분이다. 더욱이 설명회를 도입 초기 몇 차례만 진행하는데 그저 '구색 갖추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사업추진 공개 미흡

그동안 학부제 도입·불교병원건립 등과 같은 특별사업이 추진될 경우 추진단이란 명목으로 한시적 기구가 구성돼 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추진단이 소수에 의해 운영되며 진행과정 또한 공개되지 않아 오히려 학내 민주화의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직원노조의 한 관계자는 "노사협의회에서조차 병원건립과 같이 추진단에서 논의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학부제 도입 당시 학내 학회들이 "3년 동안



지난 98년 서울캠에서 열린 '비전 21세기 동국' 구조조정 공청회(왼쪽)와 올해 4월 불교종합병원 초기개원에 반대하며 총장실 점거농성에 나선 학생들의 모습(오른쪽).

준비해온 학부제를 학내 주체들이 전혀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도 이에 해당된다. 또한 최근 의대학생회가 불교병원 실사가 무산돼 연내 개원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모른 채 개원을 요구한 것은 학내 구성원들에게 사업추진과정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지난 96년 일간지 기자들을 대상으로 발표한 '통일시대 대학타운 건설계획'은 학내 구성원들이 "처음 듣는 얘기"라는 반응을 보여 학내 갈등이 심화된 대표적 사례다. 또한 최근 들어 학교운영 계획을 설명하는 학사보고회가 1년이 넘도록 무산되고 있어 교수회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학내에는 불교병원개원, 제3캠퍼스 건립 등 구성원들의 중지를 모아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산재해있다. 따라서 차기총장이 대립되는 각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화합시켜 발전을 도모하느냐

에 이목이 집중된다.

각종 위원회 실효성 높여야

이런 면에서 지난 6일 열린 총장후보 추천 임후보자 합동유세에서 모든 후보들이 입모아 "총장의 결정권을 할당하고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 학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 것은 주목할만 하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위원회의 양적팽창만을 가져온다면 오히려 의사결정의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각 위원회가 해당위원회의 성격에 맞는 구성원으로 조직되고 소위원회마다 일정한 정도의 의결권을 주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결정된 사안뿐만 아니라 집행과정도 공개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조슬기 기자
cho55@dongguk.edu

사설

유권자가 승리하는 선거돼야

전국 3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2002 대선유권자연대(이하 대선연대)'가 적극적 대선 개입 운동을 통해 정책선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선을 앞둔 시민운동진영의 정치 참여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셈이다.

대선연대는 △국가보안법 철폐 △호주제 폐지 △부패척결의 '3대 우선청산 과제'와 분야별 100대 과제를 중심으로 각 후보의 정책 및 공약을 평가하고 의제별로 적합한 대선 후보자를 유권자들에게 공개한다는 방침이어서 현 대선 분위기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정책검증을 위한 자리로 마련된 TV토론회에서 후보자별 정책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볼 때 이 같은 대선연대의 행보는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에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는 표면적인 입장과 달리 실제 유권자의 참여를 제약하는 것들이 있다는 점은 쉽게 지나칠 수 없다. 일례로 사이버 선거운동을 단속하는 선관위의 엄격한 법 적용에 대한 논란을 들 수 있겠다. 인터넷을 통한 정당과 후보의 지지·비판은 이미 일반적 현상이 된지 오래이다. 또한 사이버 선거운동이 정치 냉소주의 극복과 참여민주주의의 활성화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 역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위반사태의 80% 이상이 사이버 관련 선거법 위반 행위였다라는 사실은 선관위가 근시안적 법 적용에만 치중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한다. 얼마 전 노사모 회원 두 명이 '희망돼지 저금통 나눠주기' 운동을 벌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된 사례 역시 선관위의 융통성 없는 법 적용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문제는 이러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정치권의 이권다툼으로 인해 사실상 무산된 지금의 현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대선연대가 해야 할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기존 선거관에서 주변 대상에 그쳤던 유권자를 중심 주제로 끌어올릴 수 있는 촉매판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현실적으로 유권자의 참여를 제약하는 선거법 개정을 위한 지속적인 요구 또한 함께 해야 한다. 유권자들의 선택이 그들의 적극적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쉽사리 단순한 의무로 전락하게 만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2000년 총선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킨 낙천·낙선운동이 총선의 진정한 승자를 한나라당도, 민주당도 아닌 유권자로 만들었듯이 2002년 대선도 유권자의 승리로 마무리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동국만평

성덕환 pybumbuk@hanmail.net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송석구, 편집인 겸 주간 유흔우, 부주장 장영길, 편집국장 류병진, 편집장 손상민,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pess.dongguk.ac.kr,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구독문의 : (02)2260-3491 · 2, 동대신문 홈페이지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7가 26, 경주캠퍼스 (우)71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전화 (02)2260-3491 · 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038, 팩스 (054)770-2057

재단·종단과의 관계

재단에 수익사업 권장해 전입금 확보 유도

종단은 재단 이사회에 학교운영권 넘겨야

조계종 종립학교인 본교 재단이사회는 13인 중 9인이 종립학교관리위원회(이하 종관위)에서 추천한 재적승려로 구성됐다. 그만큼 일반 사립대학과 달리 재단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종단의 역할도 배제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종단과 재단을 동일선상에 놓고 학교와의 관계를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종관위가 이사를 추천하지만 재단 스님이사들과 종단 스님들의 역할은 분명 다르고 의견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종장의 역할도 재단, 종단과의 관계를 각각 따로 나눠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재단과 상호보완적 관계"

송석구 총장은 취임 초부터 "종속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송 총장은 "수익사업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재단에 적극 권유, 수익사업을 추진하도록 해 재단전입금을 늘리겠다"며 재단지원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실제로 송 총장은 21세기 기획단을 구성해 다양한 수익사업을 구성했고, 지난

96년에는 영탑사업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을 재단에 권유해 경기도 양평에 50만평의 땅을 매입하기도 했다. 문과대의 한 교수는 "이곳은 현재 주민들의 납골당 조성 반대여론 등 때문에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지만, 앞으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송석구 총장은 이처럼 재입기간 중 수익사업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지만 여전히 본교의 재단전입금은 2%대를 밑도는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학교측에서 연구한 수익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재단에 제시하는 방법은 더욱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선에 불교병원과 제3캠퍼스 건립계획을 발표하며 의욕적으로 건립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재단으로부터 순조롭게 동의를 얻었다. 송 총장의 이러한 사업추진 은 98년 연임결정에서 보여지듯 재단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병원개원을 앞두고 이사회가 "추진과정의 불투명성과 수익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병원장 선임, 관련장 개정 등을 유보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단에 설명이 부족했다" 점이 문

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사소한 부분까지 재단에 집중돼있는 행정권을 부분적으로 총장에게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본부의 한 관계자는 "조교, 감사 등의 인사권까지 재단의 승인을 거치는 현 절차는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예·결산과 보직인사 등 중요안건만이 이사회에 상정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기 위한 재단과 협의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종단, 재단·학교 신뢰 필요

학교와 종단의 관계는 법적인 관계정립이 되어있지 않아 엄밀히 따지면 총장 권한 밖의 일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법인세 환급금 환령사건' 직후 빚어진 종단과 학교의 갈등양상에서 알 수 있듯, 종단과의 관계는 학교운영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임에 틀림없다.

송석구 총장의 재임 8년은 불교병원 건립 등 대규모 사업추진과 종단의 적극적인 개입의지가 맞물려 갈등이 유난히 많이 표출된 시기였다.

종관위는 지난 2000년 관례적으로 행해지던 이사회 추천을 명문화 할 것을 요구

하며 재단과 본교에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나타냈다. 또한 종관위 회의에 이사장과 총장이 출석해 재무제표, 교원인사현황 등을 설명하라고 요구해 재단과 학교당국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말 본교에서 발생한 '법인세 환급금 환령사건'은 종단과 학교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사건발생 이후 종관위는 동국학원과 별도로 조사위원회를 꾸려 총장의 출석을 요구했고 "학교 회계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불교계 신문에 발표했다. 이에 본교는 반박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면서 양측의 갈등은 극한 양상을 나타냈다.

종단과 재단·학교의 대립양상은 상호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뿐이다. 종단은 본교와 재단을 설립한 모태이지만, 법령상 직접적으로 본교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다. 종단은 규정에 명시한대로 종관위를 통해 이사를 파견하는 만큼 재단이사회에 학교운영을 맡기는 대신 추천직원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도영 기자
circus@dongguk.edu

강의에 대한 온라인 설문 조사 실시

1. 취지
 - 가. 강의에 대한 합리적 분석 및 평가결과 환류 (feedback)를 통하여 강의의 질을 향상하고 궁극적으로 대학의 교육부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나. 교원업적평가 및 기관평가 시 교육부문에 대한 객관적이며 신뢰성 있는 평가자료를 산출하기 위함.
2. 시행시기 : 2002. 11. 18(월) ~ 12. 8(일) 중
3. 대 상 : 2002학년도 2학기 개설 전체 강좌
4. 응답자격 : 2002학년도 2학기 재학생 전체
5. 응답요령
 - 가. 본교 홈페이지(www.dongguk.edu)에 접속 후 강의에 대한 온라인 설문 조사 항목 클릭.
 - 나. 본인의 학번 및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강좌를 선택하고 주어진 문항의 해당사항을 선택
 - 다. 문항 건의사항란에는 자유롭게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바람.
6. 공지 사항
 - 가. 학생이 응답한 의견은 보다 나은 강의를 목적으로 하며, 그 응답 내용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않으니 진지하고 성실히 응답하기 바랍니다.
 - 나. 무성의한 답변(5점적 중 일렬로 5회 이상 답변)은 피하기 바람, 건의사항란에는 5점적 답변이 곤란한 사항 등을 서술하기 바랍니다.
 - 다. 학생은 자신이 수강하는 전체 강좌에 대하여 설문응답을 하기 바랍니다. 라. 설문 응답을 제고를 위하여 수강 강좌의 1/2이상 설문에 응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하여는 인터넷 및 본교 전산망에서 성적공시 조화를 제한합니다.

서울캠 교무처

동약로

절대기준



“어? 대학교 입학성적이 이 정도야?”
지난주 본교 홈페이지에서 한 사설입시학원이 내놓은 대학지원 가배치표를 접한 동아인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본교 입학성적이 다른 학원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이에 학내 네티즌들은 공개사과, 배치표 수정 등을 요구하는 글을 게시판에 올리며 ‘학교 점수 되찾기’에 여념이 없었다. 학교 당국 또한 이번 사건을 ‘그냥’ 넘기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한 사설입시학원의 잘못된 배치표가 대학 내에서 이처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게 된 것은 단순히 학교 이미지를 손상시켰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는 배치표가 현 입시제도에서 내놓는 배치표에 의존할 때에 절대적 기준이 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입시정보가 부족하니 배치표에 의존할 수밖에.”

“대학에서 공개되는 자료도 거의 없잖아.”

배치표가 수능점수만으로 학교 서열화를 야기시킨다는 비난이 제기되지만 수험생들은 여전히 입시학원에서 내놓는 배치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특기자 전형·수시모집 등 입시 전형이 다양해졌지만 입시정보만은 점수위주의 단편화된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가 제공되는 창구도 일부 입시학원에 한정돼 이에 대한 수험생들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각 대학은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은 학원이 아닌 대학이라는 인식을 갖고 자체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수험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교 또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캠퍼스 투어나 고등학교 방문 입시홍보 등을 활성화시켜 홍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

조슬기 기자
chof55@dongguk.edu

‘우리쌀 지키기’ 전국 농민대회 현장으로

“쌀 대신 ‘아스팔트 농사’ 지으러 왔소”



바람이 유난히 매서웠던 지난 13일, 여의도 둔치에 7만 여명의 농민이 모였다. 대부분 새벽밥을 지어먹고 나섰거나 타지에서 지난밤을 지낸 이들이었다. 이처럼 많은 농민이 한 장소에 모이기는 해방 이후 처음이다.

“물어야 쫓 준다는 속담이 있잖소. 그래서 나도 정치인을 들으라고 한바탕 울러 왔어.”

경기도 안성에서 논농사를 짓는 이정근(48)씨. 평소라면 아픈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야 할 시간이지만 혼자 서울에 왔다. 답답한 속내를 조금이라도 털어놓기 위해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정현찬 의장의 연설내용은 바로 이 씨의 이야기였다.

“농가부채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김대중 대통령이 재임하던 기간에 빚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이제 쌀 시장마저 개방한다면 농사짓지 말라는 애갑니다”

이 씨가 ‘농사꾼’이 된 것은 아주 어릴 때부터다. 끼니를 때우기도 힘들었던 집안사정으로 초등학교 졸업 후 바로 아버지의 소작일을 거들었다. 아버지가 소작 부지던 논을 이어받아 농사를 지은지 올해로 35년째다.

“결국 물려받은 건 밭하고 소작하던 논 뿐인데 그 밭은 결국 지금 5천만원이 됐어. 그 때나 지금이나 밭은 없어지지 않더라구”

같은 마을주민들과 함께 술을 마셔서인지 그의 얼굴이 더욱 발갛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그가 안성에서 경작하는 논은 약 5천평. 1년에 약 3천만원 어치의 쌀이 생산되지만 논에서 얻는 실수입은 1/3도 되지 않는다. 그나마 경기도 지역에서 생산한 벼는 일단 다 팔리지만 호남에서는 반도 못 팔아 눈을 감아놓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 자연스럽게 농민들은 밭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 씨는 “쌀을 판 돈으로 밭을 갈고

내년 초에 다시 돈을 빌리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 큰 문제는 2004년 쌀 수입개방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쌀 가격이 더욱 크게 폭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밀지는 쌀값으로 빚 갚는 악순환

2004년 외국쌀 밀려온다면

농가부채·식량장식 ‘위기’

농민이 농사 제대로 지어볼 날은...

10년 전 정부는 쌀 시장을 부분개방하면서 외국쌀의 세금부담을 낮추는 ‘쌀의 관세화’를 약속. 십 년간 유예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제 그 기한이 다가오는 것이다. 만약 이번 재협상에서 정부가 쌀을 관세화하여 수입하는 전면개방방식에 합의 한다면 우리 쌀은 노동력이 값싼 중국, 미국의 쌀과 가격 경쟁에서 크게 불리하다. 정부는 이미 몇 해 전부터 쌀과 눈을 점차 줄이는 정책을 시행해 온 터라 농민들 사이에 쌀 수입개방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개방이 두렵기는 농산물도 마찬가지다. 이번 한·칠레 협정에는 포도 등 칠레의 주요 농산물이 포함돼 논란이 됐다. 이날 농민대회의 주요 요구안이 △2004년 쌀 전면개방 반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 거부인 것도 이 문제가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각 의장의 발언이 이어지는 사이 이 씨와 마을 동료들은 불을 피워 몸을 녹이고 있었다. 이날 대화장 곳곳에는 농민들이 불을 지퍼 연기가 자욱했다. 7만 여명의 군중 속에 퍼진 불꽃과 연기

가 농민분기와 햇불을 연상케 했다. 대회 슬로건이었던 ‘농민 대항쟁’의 분위기는 7만 여명의 군중 자체로 충분했다. 하늘에는 각 언론사에서 보낸 헬리콥터들이 떠 다녔다. 농민들이 웃으며 헬리콥터에 손을 흔들자 이 씨 곁에 있던 한 농민이 말했다.

“지금처럼 나쁜 오후엔 텔레비전 오락프로그램에 즐거운 농촌의 모습이 나오지. 시골음식을 권하며 웃는 농민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한·칠레 무역협정이나 쌀 시장 개방의 그늘을 보겠어. 진짜 우리 이야기는 뉴스에 단 한 줄도 제대로 안 나온다구.” 언론이 현실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농민의 모습을 비추기 때문에 농민의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왜곡된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대회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대선 후보들의 연설이었다. 논농사를 짓는 이 씨도 동료들과 이야기를 멈추고 후보들의 연설에 귀 기울였다. 쌀 수입개방이나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 모두 차기 대통령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 ‘밀어달라’는 구호에 그칠 뿐 쌀 수입개방이나 자유무역협정(FTA)에 시인스럽게 입장을 정리한 후보는 많지 않았다. 게다가 이회창 후보는 이날 참석하지 않아 비난을 샀다.

대회는 황혼이 질 무렵이 돼서야 마무리되었다. 농민들은 둔치에서 빠져나와 국회의사당 진입로까지 행진했다. 누군가 노래 한 소절을 부르자 그들은 마치 눈을 떠서처럼 다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노래제목은 아스팔트 농사. 그들처럼 “도시로 나와 쌀 지키는 것이 모두 아스팔트 농사”란다. 바람이 유난히 매서웠던 지난 13일, 아스팔트 농사꾼 7만 여명이 거기 있었다.

송운경 기자
itsj@dongguk.edu

2만 여 노동자의 생존위반 외침

전국 노동자대회 열려 ... 경제자유구역법 폐기요구



전국 노동자대회에서 노동자들이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외치고 있다.

전태일 열사가 노동단위에 맞서 몸을 바친지 32년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생존권을 위한 노동자들의 외침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0일 대학로에서 '2002 전국 노동자대회'가 열렸다. 대회에 참가한 2만 여명의 노동자들은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비정규직 차별철폐, 공무원 노동3권 보장'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날 노동자대회에서는 경제자유구역법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는 애초 정점으로 예상했던 주5일 근무제 도입을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단체행동권이 제한된 공무원조합법 처리가 사실상 미뤄졌기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법에는 월차·생리휴가를 폐지하고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등 노동자의 희생이 불

가피하기 때문에 노동계는 이 법안을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동당 유덕상 위원장 직무대행은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해 각계각층과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대회에는 대통령 후보로 유일하게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참석해 논길을 끌었다. 권 후보는 “노동자들을 경영에 참여시켜 부를 최대한 골고루 분배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회를 마친 노동자들은 지난 14일 경제자유구역법 국회통과를 막기 위한 대정부·정

당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이런 노동자들의 운동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법안이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돼 이들은 앞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qwertewq@dongguk.edu

대선후보들의 농업·노동 정책은?

지난 노동자·농민대회에서는 농업시장개방과 주5일 근무제, 공무원 노조 등이 쟁점 사안이었다.

대선을 한달여 앞둔 지금 각 대선 후보들의 쟁점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고자.

◆ 농업정책

Table with 3 columns: Policy Area (농업시장개방, 권영길, 노무현, 이회창, 정몽준), Candidate Position (쌀 관세화 유/무, FTA 반대/비준 거부, 쌀 관세화 최대한 유예, 쌀 관세화 유예, FTA 적극 추진), and Policy Detail (농가부채 해결책, 공적자금 이용, 종합대책 수립, 정책금리 3% 인하, 정책금리 1% 인하 상환금리 10년 연장)

각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쌀 관세화 유예에 관해서는 비슷한 의견을 보였으나 FTA에 대한 입장은 뚜렷하게 엇갈렸다. 권 후보와 노 후보가 FTA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반면 정 후보는 주변국과 자유무역을 확대하겠다는 주장을 펼쳐 후보간의 견해차이를 드러냈다.

또한 각 후보의 정책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노 후보의 경우 농가부채 해결책이 뚜렷하지 않아 좀 더 구체적인 공약이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노동정책

Table with 4 columns: Policy Area (권영길, 노무현, 이회창, 정몽준), Candidate Position (임금삭감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 임금 총·규모에 따른 순차적 도입, 시가상조), and Policy Detail (비정규직 철폐, 동일노동에 동일임금 원칙 단결권 보장 연 15일 휴가 보장 노동법 적용, 사회보험 가입,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동일노동에 동일임금 원칙)

노동정책을 살펴보면 대체로 권영길 후보와 노무현 후보가 노동자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내세웠다. 특히 중도적인 입장을 보인 노 후보와 달리 권 후보는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하는 등 과감한 친노동 정책을 내세워 차별성을 띠고 있다.

이회창 후보와 정몽준 후보는 대체로 보수적인 성향을 보였지만 이 후보가 정 후보와 달리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주장한 것이 눈에 띈다. 그러나 추상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사회부
society@dongguk.edu

2003-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 1. 장학생 (장학금액) : 우수장학 (등록금 30%)
가. 단과대학수석장학 및 전공(학과)수석장학은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성적순에 따라 선발함.
나. 신규 교외장학생도 우수장학신청서를 제출한 학생 중에서 우선 선발함.
다. 신입생장학, 보훈자녀 등 계속장학생은 신청할 필요 없음.
2.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재학생으로 장학금을 받고자하는 자
가. 2002-2학기 평균평점이 3.0이상인 자 (3.0미만인자는 추후 사정대상에서 제외함)
나. 교내·외의 타 장학금을 받는 자 제외
다. 2002-1학기 복학예정자 제외
3. 신청기간 : 2002. 11. 18(월) ~ 29(금)
4. 신청장소 : 해당 학업지도교수
5. 신청방법 : 장학금신청서(소정양식)를 작성하여 제출
6. 신청서 평가기준 : 아래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
가. 학업성적 : 60점 나. 사회봉사 : 10점 다. 가정형편 : 20점
※ 항목별 세부기준은 본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해당 대학 교학부에 문의바람
7. 제출서류
가. 장학금신청서(소정양식)
본교 홈페이지(http://www.dongguk.edu)에서 다운받아서 사용
나. 사회봉사인증서
1) 교외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한 학생은 봉사기관에서 작성한 봉사활동 증명서류를 해당대학 교학부에 제출함.
2) 동국참사랑봉사단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한 학생은 자동 접수 처리됨.
3) 사회봉사경력에는 졸업시 까지 계속 인정됨.
다. 지방세(재산세)세목별(미)과세증명서, 기타 가정형편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합이 1인인 경우 부모 각각의 증명서를 제출해야함.
라. 학업성적은 자공으로 접수 처리됨
※ 장학금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장학금을 수혜 할 수 없음.

서울캠 학생처

2학기 성적처리 일정 안내

2002학년도 2학기 성적처리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1. 성적처리 및 제출 기한
2002. 12. 9(월) ~ 20(금), 17시까지
2. 성적 공시 : 12. 14(토) ~
※ 12. 9(월)~13(금)까지 입력 처리된 성적에 한하여 공시되며, 이후 입력된 성적은 담당교수별 저장 처리후 바로 공시됨.
3. 성적 정정
(1) 공시된 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교수에게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성적정정 가능 기간은 교·감사별로 사전에 확인하기 바랍니다.(담당교수별 개별 공지 예정)
(2) 성적처리 및 제출기한 이후의 성적정정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해당 기간내에 확인 및 정정하여야 함.
4. 성적표 및 E-mail 성적 발송 : 12. 30(월) 예정
※ E-mail 등록 안내 : 메일주소를 등록한 학생에 한하여 개인성적을 발송하고 있으며, 메일 등록은 본교 홈페이지 학사행정>주소지변경에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캠 교무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접수

2003년 2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합니다.

- 1. 대상자 : 2003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사범계 및 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
2. 자격
(1) 학적이 정하는 졸업요건을 갖춘 자
(2) 사범계 : 교직과목 22학점, 전공 4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표시과목 관련 기본이수영역별 상응과목을 이수한 자
(3) 비사범계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
- 교직과목 20학점, 전공과목 4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표시과목 관련 기본이수영역별 상응과목을 이수한 자로, 교직과목 및 전체 전공과목의 평균성적이 각각 80점이상인 자
3. 접수기간 : 2003. 11. 18(월) ~ 11. 29(금)
4. 제출서류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소정양식)
5. 교부 및 접수처 :
가. 사범대학생 : 소속 학과 사무실
나. 비사범계 학생 : 사범대학 교학과
※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교직안내 게시판에서 출력 가능함.
6.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는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으니 대상자는 유의하기 바랍니다.

서울캠 사범대학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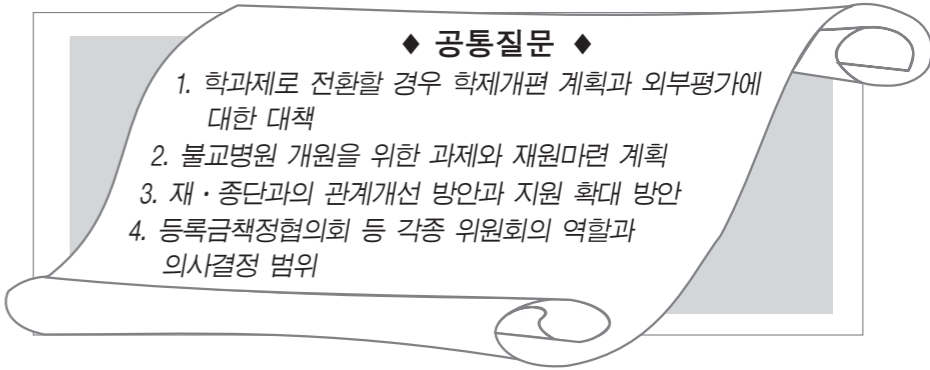
- 1. 신청자격
가. 교직과정이 승인되어 있는 학과(전공)에 현재 2학년 2학기 재학생 (3학기 조기복학자도 신청가능)
나. 평점평균 2.5 이상
2. 신청 및 선발시기
구분 신청시기 선발시기 비고
1차 2002.11.25 - 11.29 2003.1.30 선발된 학생이 전과할 경우 자격이 상실됨.
2차 2003.2.3 - 2003.2.7 2003.2.24 1차 선발결과 선발인원이 미달될 경우에 한해 전과생을 포함하여 추가 선발 가능.
3. 접수처 : 소속학과(전공) 사무실
4. 신청서류 : 교직과정이수신청서 (소정양식 : 학교홈페이지 교직과정 게시판에 있음)
5. 선발기준 및 방식
가. 교육인적자원부 승인 학과(전공) 및 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 (교직과정 설치학과(전공) 및 선발인원은 학교홈페이지 교직과정 게시판 참조)
나. 선발주체 : 학과주임교수
다. 1,2학년 누계성적(90%)과 교직인성·적성을 반영한 면접(10%)으로 선발한다.
6. 교직과정 이수절차 : 해당학년도 교직이수 가이드 참조
7. 참고사항
가.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학생이 전과하면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나. 교직복수전공 신청은 학위복수전공 신청으로 대체하므로 학위복수전공 신청기간에 신청하여 선발되어야 합니다.
8. 문 의 : 사범대 교학과 ☎ 2260-3751)

서울캠 사범대학



- ① 정책자료집에 나타난 후보자 공약분석
- ② 정책연설 · 질의응답 지상중계
- ③ 주요쟁점 서면인터뷰

지난 6일 열린 총장후보 합동토론회를 바탕으로 공통질문을 던져 각 후보들의 견해를 들어보았다.



- 1. 학과제로 전환할 경우 학제개편 계획과 외부평가에 대한 대책
- 2. 불교병원 개원을 위한 과제와 재원마련 계획
- 3. 재·종단과의 관계개선 방안과 지원 확대 방안
- 4. 등록금정책협의회 등 각종 위원회의 역할과 의사결정 범위

부설기관 신설로 수익사업 확대 추진

1. 전임교원 확충과 커리큘럼 개편을 위해 현재 52% 수준의 교원확보율을 60%선까지 올려놓을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공별 필수과목을 원칙적으로 상호조정하고 선택과목은 다양하면서도 현실응용이 가능한 분야를 신설코자 합니다.

또한 내년 새 정부가 학부제를 토대로 한 현행 대학평가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해도 40% 정도를 학과로 전환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일산에 소재한 불교병원 개원이 연기된 것은 총장과 재단 이사회가 의견조율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단이사회에 정관개정에 대한 동의를 구한 뒤 대한병원협회와 조속한 개원을 위한 실무합의를 하는 일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또한 개원을 위한 재원은 현재 발전기금으로 적립한 자금 중 일부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700억원 모금계획 중 270억원을 개원 후 병원발전을 위해 투자할 것입니다. 물론 개원준비자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교수·직원·학생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3. 재단과 종단은 법적으로는 엄연히 분리된 별개의 조직입니다. 우선 재단과 학교당국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전 협의와 의견조율을 통해 중대사안을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재단 진입금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전산원과 더불어 불교전문학원, 연극영화학원, 중국어학원, 기술·경영컨설팅학원 등 비교우위를 가진 분야의 부설기관을 신설·운영해 수익성 교육사업을 확대해야 합니다.

한편, 종단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불교 행사와 교육 지원을 통해 불교 지원을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4. 교육주체인 교수와 피교육주체인 학생이 동일한 지분을 가지고 등록금 인상률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한다는 것은 그 가능성이 서로 다른 주체들간의 인격적·도덕적인 관계를 저해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뤄내기 어렵습니다.

대신 학교당국이 적절한 수준의 인상을 물 사전에 예고한 뒤 사용 내역과 학생복지 향상 계획 등을 투명하게 제시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 학과제를 다시 도입할 경우, 교원은 현재 인원으로 가능하며 대대적인 충원은 필요치 않습니다. 또한 교과과정은 교양 기초 과목 강화를 위한 영역별 필수과목을 부활하고 전공필수 및 전공 선택 과목을 두도록 개정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들도 학부제 모집에서 학과별 모집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이 현행 학부제 신입생 선발의 80%를 학과별 모집으로 전환한다고 해도 교육부가 권고하는 학부제 선발 인원이 20% 남아 있으므로 교육부 평가와 재정 지원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일산 불교병원은 개원 준비 미흡과 재원 부족 등으로 재단이사회에서 병원 운영 정관이 통과되지 못하여 개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일산 불교병원을 개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병원협회에서 규정한 인턴 및 레지던트 수련 병원이 되기 위한 기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늦어도 내년 7월까지 병원장 및 기본 8개과 의료진 초빙, 의료 장비 도입, 최소 200병상을 갖추

내년 7월까지 병원실사 준비 마무리

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재원은 리스 자금 및 병원 수입, 발전기금 및 재단 진입금으로 충당할 것입니다. 불교병원 개원 후 사용된 자금 내역은 학내 구성원에게 반드시 공개할 것입니다.

3. 학교와 재·종단과의 관계는 큰 문제가 없으며, 학교와 재·종단과의 관계개선 방안 등을 고려해 불만급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단의 불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종단의 총무원장과 재단이사장, 학교의 총장이 협력하여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계종 분사 주지 스님들께서 위원으로 참여하는 범종교발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불교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좋은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4. 대학의 구성원은 교수·직원·학생입니다. 대학의 구성원이 등록금정책협의회 등과 같은 위원회를 구성하여 학내 의견 수렴에 참여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대학특성화 포괄한 장기발전전략 수립

1. 학부제가 존치되는 전공·대학에 대해서는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각종 지원제도(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홍보체계나 컨설팅 서비스 등)를 확충하고, 학과제로 복구되는 전공·대학에 대해서는 교원확충과 커리큘럼의 변경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더 시급한 것은 우리 학교 전체의 특성화를 포괄한 장기 발전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학과제로의 전환은 대세이므로 그리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2. 불교병원의 개원이 연기된 것은 재원조달 문제와 개원방법 및 경영전략 문제에 대해 학교당국과 재단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개원준비위원회가 재단 내에 구성된 만큼 개원시기·방법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외부전문가들의 분석을 토대로 경영내용이 파악되기를 기대합니다.

불교병원 개원을 위한 별도의 재원마련 계획은 없으며 자금 사용내역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위해 학교 및 병원간의 회계분리 등 상당기간의 준비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3. 조계종단으로부터 대학의 자율을 보장받되 능동적으로 협력하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요청할 수 있는 동반자 관계를 정착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인력을 활용하여 각 사찰 노스님들의 진료를 전담하는 이동진료체계 등을 통해 교계가 자율적으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학교와 종단이 화해하기 위해서는 총장과 학교경영이 청신하여야 하고 교계에 협력을 요청하기 전에 총장은 학교발전제에 대한 열의와 비전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그동안 본교의 등록금 책정과정에서 학생과의 대화가 없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산집행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학내구성원간의 불신은 해소될 것이고 마찰은 최소화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책정을 위하여 학내 구성원간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통로이지 학생들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1. 본교의 학부제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전공선택권을 보장해 주고 우리 사회의 여건과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재양성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어 온 제도입니다.

그러나 학부제는 몇몇 인기전공에 대한 학생들의 편중현상을 초래했으며 기초학문 분야 전공선택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이어지는 등 대학존립의 본질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안문제들을 전공별 특성에 따라 심도있게 재검토해 보완하고 보다 나은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문제와 관련되는 교수 충원문제나 커리큘럼 개편 문제를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일산병원 개원이 중단된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사전계획이 미비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원에 대해서는 학교당국이 개원에 필요한 상당수준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원 준비에 필요한 TFT(Task Force Team)가 구성

등책협 구성 적극적 협력 계획

되어야 할 것이며 개원철차와 소요자금의 현안 및 집행 내역은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종단과 재단의 큰스님들과 17만 동문 및 2천만 불자들을 대상으로 불교발전과 동국대발전의 연계의식 전환운동을 통한 발전기금 마련에 앞장서겠습니다.

특히 각 단과대학 및 대학원 단위별로 1단계 1교구본사 등의 자체결연 방식에 의한 지원과 협력체제(장학기금 조성 등)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교법인의 수익용 재산으로 수익사업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수립할 것입니다.

4. 우리 대학이 진정한 의미에서 안정된 운영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대학 내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의사결정을 하려는 상호노력이 필요합니다. 본인은 총학생회가 추진하는 등록금 관련 협의체 구성 안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2003학년도 전과(전공)변경 공고

- 지원지역**
2학년과정을 수료하고 총 성적의 평점평균이(F성적을 포함) 2.5 이상인 진급예정자
- 전공변경 대상전공(학과) : 원칙상 개설제한 없이 전 전공(학과)**
- 제한사항**
가. 경찰행정학과로의 전공(학과) 변경
나. 캠퍼스간 전공(학과) 변경
다. 야간에서 주간 및 주간에서 야간으로의 전공(학과) 변경
라.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한 자
마. 입학시 전공(학과)변경 제한 조건으로 입학한 자
바. 예체능계 지원시 실기시험 부과
- 전공(학과)변경 허용인원 :**
전임 전공(학과) 2001학년도 입학정원의 50%(사범계열 20%)
- 시험일정**
가. 원서접수
1) 접수처 : 전임희망 전공 소속대학 교학과(야간은 야간강좌 교학과)
2) 접수기간
① 재학중인 3학년 진급예정자 : 2002. 11. 18(월) ~ 22(금)
② 2003학년도 1학기 3학년 복학예정자 : 2002. 12. 9(월) ~ 11(수)
3) 구비서류 : ① 전공(학과)변경원 ② 자기소개서 및 학업이수계획서
※ 예체능계 지원자는 별도의 전형료(W30,000)를 납부하여야 함.
나. 면접 및 실기고사
전공(학과)별 일정에 따라 2002. 12. 16(월) ~ 20(토)
다. 전공(학과)별 합격자 결정 : 2003. 1. 24(금)
라. 전공(학과)변경 합격자 공고 : 2003. 1. 28(화)
-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
가. 일반계열 : 2학년 성적평점(100%) + 면접
나. 예능계열 : 2학년 성적평점(70%) + 실기고사(30%) + 면접
다. 사범계열 : 2학년 성적평점(90%) + 교직 인 · 적성검사(5%) + 면접5%
라. 체육교육과 : 2학년 성적평점(60%) + 교직 인 · 적성검사(5%) + 면접 5% + 실기고사(30%)
- 기타 세부사항은 소속대학 교학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2학년도 1차 전공결정 시행

- 신청대상 :** 가. 2002학년도 1학년 재학생 나. 2학년 1학기 복학생으로서 전공 미결정자
 - 일정 :** 가. 전공 배정 신청기간
- 1학년 재학생 : 2002. 11. 25(월) ~ 11. 29(금)
- 2학년 1학기 1차 복학생 : 2002. 12. 9(월) ~ 12. 11(수) (1차 복학시기)
- 2학년 1학기 2차 복학생 : 2003. 2. 24(월) ~ 2. 26(수) (2차 복학시기)
나. 전공배정 최종 결정 및 확정공고 :
- 1학년 재학생 및 2학년 1학기 1차 복학생 : 2003. 2. 14(금) 한
※ 대학별 공고 및 홈페이지 게시
- 2학년 1학기 2차 복학생 : 2003. 2. 28(금) 한
 - 대학별 전공신청 요건**
- | 대 학 | 전공 신청 자격 | 비 고 |
|------|---|-----------------------|
| 불 교 | ① 평점평균 2.5이상 ② 30학점 이상 취득
③ 대학지정공통과목 3과목 이수 | 99년까지의 입학자는
①②만 요건 |
| 사회과학 | ① 평점평균 2.5이상 ② 30학점 이상 취득 | |
| 경영 | ① 기초공통과목 2과목 이수 ② 기초특과과목 3과목중 2과목 이수
③ 평점평균 2.5이상 ④ 30학점 이상 취득 | 99년까지의 입학자는
③④만 요건 |
- ※ 문과대학, 이과대학, 생명자원과학대학, 공과대학, 정보산업대학은 자격제한 없음.
- 대학별 전공결정 기법(시기)** 가. 문과대, 이과대, 공과대, 정보산업대 : 1회(1학년 2학기말)
나. 불교대, 사회과학대, 경영대, 생명자원과학대 : 2회(1학년 2학기말, 2학년 1학기말)
 - 배정기준 :** 1학년 1·2학기 성적과 계절학기 성적을 혼산한 누계 평점평균을 비교 적용
 - 복학생의 전공결정** 가. 기본원칙 : 복학생은 입학당시 소속된 모집단위내에 개설된 전공(학과)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단, 모집단위가 세분화되어 소속 변경된 경우 변경한 학부 소속 전공만 지원 가능하다.
나. 배정기준 : 일반 재학생과 동일한 배정기준을 적용한다. 단, 2차 복학자의 성적이 1차 전공결정시 전공을 배정받은 학생(재학생+1차복학자)의 cut-line보다 높을 경우에는 선발정원을 초과하더라도 희망 전공에 배정한다.
 - 동점자 처리기준**
가. 제1기준 : 개인별 누계 평점평균을 소속수 셋째자리까지 비교한다.
나. 제2기준 : 평점평균이 동일한 자중에서 총 취득학점이 많을자가 우선한다.
다. 제1,2기준에도 동점자일 경우 총 순위로 처리한다.
 - 전공결정 신청방법**
가. 1학년 재학생 : 인터넷 신청(학교 홈페이지)
나. 2학년 1학기 복학생
(1) 문과대, 이과대, 공과대, 정보산업대 소속 복학생 : 소속 대학 교학과에서 전공 신청원을 교부받아 본인이 소속된 모집단위내의 개설전공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4지망까지 작성하여 신청한다.(동일전공 중복지원 불가)
단, 소속 모집단위내 지원가능한 전공이 4개 미만일 경우에는 4지망 미만일 수 있다.
(2) 불교대, 사회과학대, 경영대, 생명자원과학대 소속 복학생 : 소속 대학 교학과에서 전공 신청원을 교부받아 본인이 소속된 모집단위내의 개설전공 중에서 1개의 전공을 선택하여 신청한다.

2003학년도 1학기 휴학·복학·재입학 시행

- 일반 휴학**
가. 접수일자 : 12. 12(목) ~ 16(월), 2003. 3. 3(월) ~ 5(수)
나. 휴학 대상자 : 가정결연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수업일수의 2/3이상 출석할 수 없는 학생 또는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
다. 신청서류 : 보충자가 연서한 일반휴학원, 휴학연장원(휴학연장서) 1부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라. 유의사항 : 일반휴학은 1회에 2학기를 원칙으로 하며, 재학기간 중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단,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1년 추가 연장 가능), 일반휴학 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는 자 또는 휴학연장원을 제출하지 않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 제적됨
- 복학**
가. 접수일자 : 12. 9(월) ~ 11(수), 2003. 2. 24(월) ~ 26(수)
나. 복학 대상자 : 일반휴학자로서 휴학기간 만료시 및 한학기만 휴학하고 복학할 경우 교과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자, 병사휴학한 자로서 전역자 및 2003년 3월말이전 전역예정자.
다. 2003학년도 1학기 복학대상자중 2학년 복학예정자는 전공결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소속대학 교학과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라. 구비서류
1) 일반복학자 : 복학원서 1부(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2) 군복학자 : 복학원서 1부(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전역증사본 또는 주민 등록초본(전역일자 기재된 것) 1부 (※전역예정자는 제대 후 반드시 전역증사본 또는 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재입학**
가. 접수일자 : 12. 9(월) ~ 11(수), 2003. 2. 24(월) ~ 26(수)
나. 재입학 대상자 : 퇴학 및 학칙 제53조의 사유로 제적된 자로서 2002년 1학기 재입학 희망자. 단, 학칙 제53조 12호의 학사징계 제적자는 제적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후 가능
다. 재입학 허가자 등록기간 : 12. 16(월) ~ 18(수), 2003. 3. 3(월) ~ 5(수)
※ 소정기간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재입학이 취소되며, 차순위자가 재입학 가능하게 됨을 유의 바랍니다.
라. 구비서류 : 1) 재입학원서 1부(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2) 재적증명서 1부 3) 성적증명서 1부
※ 접수 및 기타 문의사항은 소속 단과대학으로 상담 바랍니다.

소나기

노무현 + 정몽준 = ?
(후보단일화를 바라보며)



△이회장을 저지할 수 있다면 필수!
△노무현이 되었으면 좋겠다.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은 되겠지.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닌 듯...
△이회장이 뭐가 어때서!
△DJP연대의 재연?
△이념과 정치색깔이 다른 후보들끼리 단일화한다는 것이 맘에 안들긴 하지만 반 이회창 세력은 좋아할 듯.
△예정된 수순.
△이회창보다 낫다. 마산 부산 10.18 민주화회의 힘으로 한나라당 민정계 몰아내자!
△아깝이지 뭐.
△어차피 안 할거잖아, 역선 쓰지 말기를...
△주체적 노선을 지켜야 한다!
△22.8+22.1≠44.9임을 알아라. 이회창이 된다.
△순서가 회창이다. 나머지는 들러리...
△노무현+정몽준=노무현.
△장난치나? 둘 다 싫다!
△글쎄, 노무현과 정몽준?
과연 순탄하게 단일화가 이뤄질까요?
△동상이몽이 이들을 말하는 거겠조.
△정책도 다르면서 안 될 거 같으니까 합하는 거 뻔히 보이는데, 국민을 우롱하는 거겠조.
△하면 성공하겠조.
△과연 5년 뒤에 우리 '공안정국'에서 살고 있을까?
△퓨전! 노무현!
△둘 다 대통령감은 아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누가 하나~
△헌들걸... 모두 이해를 달라고 있어서.
△후보 단일화가 되든 안되든 중요한 건, 당선과 상관없다.
△단일화를 통해 부시 + 고이즈미 + 이회창의 3차 보수파 연합결성은 필히 막아야 한다.
△단일화가 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정몽준과 이회창이 다를 바 없다.
△이회창이 극우 보수 세력이라면, 정몽준은 보수 우익 세력이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불과 한달 정도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선 역시 조금도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다. 전혀 정치에 대한 준비 없는 이들이 대통령 되었다고 나선 것을 보면, 우리네 정치의 현주소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또한 여의도는 그야말로 권력의 행배를 따라서 이미 비행을 시작했거나, 또는 비행을 준비하는 철새들의 도래지로 변하고 있다.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른바 장밋빛 대선 공약이 아니겠는가?
선거는 유권자인 국민이 주체가 되어서 그들의 주권을 위임할 대표자를 선출하는 정치적 행사이다. 더구나 국가의 최고 지도자이자 권력자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이 지니는 의미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국민이라 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말임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네 선거는 전통적으로 소수자를 의식하거나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최근 들어 '여성할당제'와 같은 정책을 보면 정치적 소수자의 위치에 머물고 있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배려를 한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



논단
김덕영
한국 디지털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소수자가 바라 본 대선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 역시 단지 표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물론 모든 대선 후보들이 장애인과 같은 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하겠다고 호언하지만, 이것 역시 여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
결국 대선은 권력을 추구하는 정치인들과, 이들로부터 일정한 반대급부를 기대하는 사회적 다수자들이 벌이는 그들의 잔치요, 쿠틀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정치의 후진성, 또는 좀 더 일반적으로 한국사회의 접근대성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사회학적으로 보자면, 한국사회는 아직도 정치적 소수자들을 '질적 개체'가 아니라 단순히 '양적 개체'로 간주한다.
모든 개인을 나름대로의 개성과 특성을 지닌 주체적 자인 질적 개체가 아니라, 누구나 다 똑같은 양적 개체로 본다. 바로 이것이 정치적 계산에서는 오로지 포로

환산되는 것이다. 남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은 나의 존재나 삶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의 내용을 풍부하게 해주는 계기가 된다.
실령 부림자나 죄수와 같이 아직은 질적 개체로서의 존재와 삶이 불가능한 처지에 있는 사회적 소수자를 역시 이에 대한 권리와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들에 대한 배려를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근거해서 그들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정치문화는 소수자에 대한 배려의 측면에서 보자면 단순히 접근대성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접근대 사회만도 못한 성격이 강하다. 예를 들자면, 가난하고 불쌍한 소수자들을 도와주고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왕조가 존립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 가운데 하나라는 이념이 지배하면서, 조선의 국왕들은 고아, 장애인, 노인, 홀아비, 과부 등의 구휼에 커다란 배려를 했다.
소수자에게 열린 대통령 선거, 이는 우리의 정치문화를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는 지름길일 것이다. 모든 개인이 질적 개체성을 보유하고 다원성이 존재하는 그러한 사회 말이다.

‘파안대소’가 진정 웃으려면

이번 총학생회 선거는 참으로 저조한 관심 가운데 진행되었다. 결국 과반수도 안되는 선거율로 서울캠 총학생회 선거는 다음으로 미뤄졌다. 이에 촉지는 일반 학생들의 개인주의를 비판하지만 학생의 무관심을 개인주의의 결과로만 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나는 34대 총학에게 이렇게 묻고 싶다. 1년전 내세웠던 공약은 성실히 이행되었는가. 물론 주요공약이었던 불교병원 조기개원문제와 일부 단과대 문제들이 이행되었다는 것은 인정하며 감사드린다.

화합과 협력을 바라며

선거시즌이 되면서 학생회 및 각 단과별 회장 및 부회장 출마 후보들이 선거 운동 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된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공약을 내세우고 학생들의 한 표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그들이 지금 당면해 있는 현실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우려된다. 현재 온방울 내에는 여러 단위의 단과대 학생회가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그 모두가 제대로 화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10월 10일 학생총회 후부터

하지만 아쉽게도 당시 '동고동락' 후보가 내세운 공약들은 지금껏 이행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35대 후보로 나선 '파안대소' 후보들이 34대의 공약(空約)을 자신들의 공약(公約)으로 내세웠다. 과연 이들이 도서관자치위원회, 인권위원회 설치 등등 '동고동락'의 옛 공약을 실현시킬지 의문이다. 나는 그들이 34대 총학과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결국 일부 학생들에게 34대 총학이 실망을 안긴 점, 그리고 35대 후보 역시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 여기게 한 점이 투표를 저조한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이다. 덧붙여 이런 일들은 "역시 한총련은 개혁되어야 할 대상이다"라는 식의 학내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총학생회와 기타 학생회의 골은 갈수록 깊어져가고 있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도 도저히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내년 학교 및 단과대의 사안을 책임져야 할 출마자들은 정작 내부에 대한 문제들은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선거운동 과정에서 그런 것까지 학생들에게 인식시켜야 되나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현재를 넘어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런 것들을 배제한다는 것은 현실회피로 비취질 수밖에 없을

한총련 존재위기에까지 불러 올 수 있다. 문과대에 이어 이번 선거에서 사과대 마저도 한총련 계열의 후보가 탈락한 것이 이러한 상황을 말해준다.
물론 '파안대소'야말로 34대 총학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의 정책자료집에서 공약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정책 설명회 또한 자주 마련되지 못했다.
'파안대소'가 제기하고 싶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파안대소'가 동국인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길이고 내년 총학 선거율을 높이는 길이다. 이재준 (사과대 사회)

것이다. 물론 후보자들이 학생들을 위해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건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내실이 튼튼해야 다른 모든 것들도 강해질 수 있는 것처럼 현재 각 학생회들의 관계가 붕괴위기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점 또한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아무쪼록 출마한 후보들은 현실을 배제하지 않는 현명한 정책제시로 학생들의 공감대를 얻어야 할 것이다. 모든 학생기구가 화합하고 협력해야만 학교 전체가 원만해지고 학교생활의 질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정대근 (자연대 정보통신)

■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

무분별한 소비행태 지적

요즘 우리는 무분별하게 돈을 쓰는 경우가 많아졌다. IMF로 상징되는 경제 불황이 점점 해소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즉흥적으로 소비를 하는 일이 늘어난 것 같다.
지난호 동대신문 문화면의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기사에서는 요즘 대학생들이 자신의 소비가 충동적이라는 사실을 익히 잘 알고 있다고 서술하였다.

하지만 자신의 소비가 충동적인 것을 알면서도 개선하려하지 않는 이유 등 해결책 제시가 없어 아쉬웠다. 또한 저축을 하는 이유가 비록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극단적인 소비 행태로 치달은 것은 아니지만, 기사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단지 10% 저축하는 이의 행태로 전체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그러나 대학생들의 소비문화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좋은 기사였던 것 같다.
조진원 (경영대1)

성적 벗어난 기사 아쉬워

나는 동대신문을 거의 매주마다 다 읽어 보지 못하더라도 문화면만큼은 단 한번도 빠트리지 않을 정도로 문화면에 관심이 많다. 특히 이번 경주문화면에 서는 부산 추리문화관에 대해 소개해 내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기사의 정체성을 알 수 없었다. 나와 같은 이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었겠지만 경주문화라는 큰 틀을 보기 좋게 비껴나간 것 같다. 지금까지 경주 내 방치된 문화재

를 알리거나 문화행사 소식 등을 전해 주어서 나 역시 경주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전혀 알지 못했던 정보들을 접하게 되어 신선했다.
그러나 이번 부산 추리문화관 기사가 경주문화면에 있다는 것은 맞지 않는 웃을 입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웠다. 경주문화면이라면, 거기에 맞도록 대학교 지역 내 문화 소식을 많이 전해 주었으면 한다. 경주문화면을 통해 대학 문화 뿐만 아니라, 지역과 대학이 연계해 나가는데 한 발 앞장서는 동대신문이 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황보경 (상경대 국제통상4)

서울 ☎ : 2260-3491·2
FAX : 2279-1270
경주 ☎ : (054) 770-2058
FAX : (054) 770-2057
문의·제보 : dgupress@dongguk.edu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교료를 드립니다.
-성덕환 - pybumbuk@hanmail.net



동약광장

목격글
축하합니다
△회창야, TIME 데뷔 축하해! -01선배
△웅기형, 유럽 잘 다녀와요. -중우
△선거 당선되신 분들 축하합니다.
△Liberal 21 학술지 발간 축하합니다.
△17일 우리 구라대마왕 귀빠진 날! 대박 축하!
△11월 21일 용민이형 생일 축하합니다.
△사법대 학생회장 승효형 축하해요.

연방글
축하합니다
△자주적 학생회 건설을 위해 수고하신 동약인들 화이팅! -19YC
△우리말! 한해동안 수고 많았어.
열심히 하시다
△수업거부는 계속된다.
△영수야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
△동호야 우리 열심히 하자.
△최성웅, 박정환 열심히 과 학생회 이끌어 나가십시오.
△희망의 이관사관 2003년. -맛
△종관 오빠 선거운동 하시느라 수고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삽

연방글
축하합니다
△일어일문 95학번 졸업시험 통과 축하합니다.
△안·공 종현오빠 인사(?) 진심으로 축하해요.
-영·희·민
△군행 오빠, 동연회장 당선 축하해요. 03년 기본 좋은 동연 만드세요.
△석이 오빠, 비행기 탄 거 축하해요.
△12월 1일, 지씨랑 이씨랑 1주년 축하해.

연방글
축하합니다
△누나, 자주 연락해줘서 고마워.
열심히 하시다
△은영야,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지? 끝까지 잘해보자. 물론 맘 상하는 일도 많고, 지금도 힘들어 눈물 날 때도 있지만, 힘내자!! 파이팅!! -진
△Shout! 열심히 해라. 웃는 승리의 그날을 위해. jia you!
-bian
△현석오빠, 호주 가서 영어 열심히 잡고 닦아요.
△윤정야, 중국 가야지... 중국어 열심히 공부해.

수고하셨습니다
△선거 준비, 활동한 사람들 모두모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
△신방과 학생회장 오명규,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학대 김홍규, 황재용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쁜것
△민형누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해요. 우헤헤. -정 feel

수고하셨습니다
△인문대 민중노래대 '그날이 오면' 공연 연습동안 패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02를, 미운 우리동기를, 광년 누나들, 그리고 영일형, 정미누나, 모두요.
△총학 선거하시는 분, 추운데 수고가 많으세요.
△정영·윤희·현숙, 동심 공연한다고 힘들었지? -지

수고하셨습니다
△일문 진성원, 답배 좀 그만 퍼라.
△진희광, 수위 아저씨, 지난번에 커피 한잔 넘 고마워요. -황신해 님이었던 애
△어김없이 찾아오는 겨울, 역시나 내게는... 좋은 사람 찾음.
△나는, 이제 공부 열심히 할거다!!
△열심히 노력한 당신, 이제 쉬어라.
△작은 언니, 미팅 주선하면, 알지??

수고하셨습니다
△일문 진성원, 답배 좀 그만 퍼라.
△진희광, 수위 아저씨, 지난번에 커피 한잔 넘 고마워요. -황신해 님이었던 애
△어김없이 찾아오는 겨울, 역시나 내게는... 좋은 사람 찾음.
△나는, 이제 공부 열심히 할거다!!
△열심히 노력한 당신, 이제 쉬어라.
△작은 언니, 미팅 주선하면, 알지??

서울캠

	월(11/18)	화(11/19)	수(11/20)	목(11/21)	금(11/22)
동국관	돈육볶고추찌개 (1300) 닭꼬치구이 (1500) 제육콩나물볶음 (1500)	장조림백반 (1500) 쇠고기 볶음밥 (1500) 순살돈가스 (1500)	햄스터찌개 (1500) 닭도리탕 (1500) 김치불고기비빔밥 (1500)	갈비탕 (1500) 소고기키리라이스 (1500) 된장찌개백반 (1500)	설렁탕 (1500) 제육김치 (1500) 스파게티 (1500)
상록원	소고기당면탕 (1500) 오징어볶음 (1500) 떡만두국 (1500)	부대찌개 (1500) 제육갯잎볶음 (1500) 케이준치킨샐러드 (1500)	양지탕 (1500) 해물콩나물찜 (1500) 소고기구밥 (1500)	닭개장 (1500) 생선가스 (1500) 건새우이육국백반 (1500)	복어석어찌개 (1500) 양송이볶음밥 (1300) 족찜 (1500)
교직원	해물전골 (3500) 닭조림 (3200)	설렁탕 (3000) 두부김치 (3000)	영양돌솥밥 (3200) 근대국백반 (3000)	유부보쌈전골 (3200) 계장백반 (3500)	조기찜 (3200) 탕수육 (3200)

경주캠

	월(11/18)	화(11/19)	수(11/20)	목(11/21)	금(11/22)
학생회관	숙음배추국 (1300) 키리라이스 (1500) 소고기볶음밥 (1700) 설렁탕 (1800)	소고기당면국 (1300) 돈육볶음 (1600) 치킨가스 (1800) 곰탕 (1800)	김치국 (1300) 오징어볶음덮밥 (1600) 장터국밥 (1800) 스페니쉬죽찜 (2000)	미역국 (1300) 미꾸라지부엌밥 (1500) 새우가스 (1800) 육개장 (1800)	호박김치된장국 (1300) 닭갈비볶음밥 (1700) 육개장 (1800) 불낙덮밥 (2000)

가수 '여행스케치' 를 만나

“의식 있는 대학생, 문화도 정치도 A+”

개인주의 심화로 공동체의식 사라져 ... 대선 계기로 참여의식 높여야



= 온라인상의 활동이 많아지다보니 세대의 경계가 무너지고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들의 문화가 모두 비슷비슷하다. 단적으로 '대학가요제'만 봐도, 예전에 느낄 수 있던 대학생만의 독특함과 신선함보다 연예인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 합합이든 포크든 대학생다운 맛을 살리려고 노력해야 그들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이를 위해서는 대학문화를 만들 수 있는 학내 공연장 등 문화공간이 더욱 많아져야 할 것이다.

- 과거와 현재 대학생들의 정치 의식을 비교한다면,

= 최근 대학에 공연을 가면 모이는 학생들의 수가 예전과는 큰 차이가 난다. 대학 축제의 모습이 많이 변했듯 '대동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학교들도 많지 않다. 이는 학생들의 관심 사항이 크게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처럼 총학생회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 않는 요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것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개인적으로 대학에 다닐 때 노래패와 학생회 활동을 했는데 학생들이 하는 일조차 불투명한 정치권과 다른 게 없다는 것에 회의를 느껴 그만두었다. 이와 비슷한 갈래로 학생들이 믿고 의지할만한 대표자가 없다는 점도 문제인 것 같다.

-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차기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은,

= 한정된 사람들만 문예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세태를 바꾸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균등한 기회의 창구를 마련해야 우리처럼 젊은이들의 트렌드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도 살아남을 수 있다.

얼마 전 일본의 인디 밴드들의 활성화된 길거리 공연을 다룬 다큐멘터리 '인디문화가 대중문화를 이끌어간다'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우리도 일본처럼 인디 문화를 활성화시켜 대중문화의 질적 발전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립공연장으로 제한됐던 시민회관을 개방해야 한다. 이는 공연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공연장을 제공할 뿐 아니라 시민들이 부담없이 공연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다가오는 대선과 관련해 대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우리가 확립화된 음악에 휩쓸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듯이 대학생들도 투표를 하지 않는 요즘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투표를 자신을 위한, 자신만의 권리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투표를 월드컵처럼 중요하고 재미있는 국가 행사라고 생각하자. 월드컵 때 보여줬던 열정과 애국심을 이번 선거 때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때문에 그 자리에 우리도 반드시 참여할 생각이다.

김하나 기자
sellyone@dongguk.edu

대선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학생들의 대선에 대한 관심은 매우 저조하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계는 대학생들의 투표 참여를 위한 다양한 움직임을 벌이는 추세이다. 더불어 대통령 후보들에게 공연예술계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포럼도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이에 발맞춰 대학생의 변천사를 겪은 데뷔 14년차 가수 '여행스케치' 를 만나 대선에 관한 생각과 요즘의 대학문화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 요즘 대학 문화에 대한 생각은,

문화단신

문화분야 양허요청안 철회요구

세계문화기구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문화연대)는 문화관광부가 지난 6월 30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한 '문화분야 양허요청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사회적 합의 없이 출판·영화 등 문화·서비스 부문을 전면 개방하는 양허요청안을 제출한 것은 이윤배반적 행위라는 내용으로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또한 이와 관련해 스크린쿼터문화연대,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언론노조 등 문화예술단체는 '제7회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중인 15~17일 부산 PIFF광장에서 WTO 문화분야 양허요청안 철회를 위한 침묵시위를 진행했다.

사이버스페이스의 악동들

민족예술인총연합회(이하 민예총)가 주최하는 2002 사이버 문화 강좌 '사이버스페이스의 악동들'이 오는 21일 민예총 문예아카데미 제2강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강좌는 지난 90년대 중반 PC통신부터 이어온 우리의 인터넷 문화를 되돌아보고자 마련되었으며, 매주 금요일 △야행행과 한국의 사이버 문화 △사이버 논객의 계보학 △커뮤니티를 살리는 게시판 문화, 죽이는 문화 △베타뉴스로 보는 사례연구를 주제로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성숙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문의 739-6851

클릭! 풍류일가(www.lutain.com)



흔히 영화 한 편을 보고, 책 한 권을 읽고, 음반 한 장을 사서 듣는 일들을 문화생활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소비활동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때 우리가 값을 지불하는 것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문화다.

이처럼 문화를 소비하는 시대에 마케팅과 문화가 만나 '문화마케팅'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 약간 생소하지만 어느새 우리 일상 곳곳에 스며든 이 개념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다면 문화마케팅 사이트 '풍류일가(www.lutain.com)'에 가보자.

오른쪽 상단의 'CULTURE & MARKETING' 메뉴를 클릭하면 다양한 문화계의 마케팅 소식을 전해주는 '문화마케팅뉴스', 문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문화포럼',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엿볼 수 있는 '마케팅포럼', 진정한 문화주체를 소개하는 '문화인/문화기업', 풍류일가의 웹진 '풍류일가지' 등 특색 있는 콘텐츠를 통해 알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옆의 'COLUMN' 메뉴는 △문화마케팅 △문화레포트 △영화속으로 △미술통신원 등 문화에 대한 관심을 글로 표현한 칼럼으로 문화 각 분야와 마케팅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또한 'COMMUNITY' 메뉴에서는 △자유게시판 △상담게시판 △자료게시판 △구인구직 등 다채로운 소통의 공간에서 문화마케팅을 함께 하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문화도 상품이다'라는 구호가 낯설지 않은 지금, 마케팅과 문화가 만나 생성되는 부가가치는 문화발전의 또 다른 원동력이 된다. 문화마케팅과 그 생산적 파급효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풍류일가에서 진정한 '풍류'를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수경 기자
papaya@dongguk.edu

예술대 미술학부 졸업작품전

프로 작가 향한 빛나는 날개짓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기법과 양식을 담은 한국화에서부터 다양한 재료와 파격적인 형식을 보여주는 서양화, 여러 가지 재료로 입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조소, 화려한 색감과 세심한 붓놀림으로 불교적 요소를 담아낸 불교미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미술작품을 한 번에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가 있다. 본교 미술학부 4학년생들이 본격적인 작가로의 탐바꿈을 시도한 첫 무대, 졸업작품전이 그것이다.

지난 13일부터 내일(19일)까지 갤러리동국과 인사동 덕원미술관에서 열리는 이번 졸업작품전은 예년과 달리 전시 작품 수가 개인 당 2점에서 3점으로 늘어나 좀 더 다채로운 작품을 접할 수 있다. 또한 교외전시도 함께 열려 단순히 4년간의 성과와 기량을 보여주기 위해 으레 치르는 절차로서만이 아닌, 일반인도 함께할 수 있는 전시회로 한층 발전했다.

작품전에 대표로 참여한 경순영(서양화4) 양은 "불감과 흥미를 이용한 소극적 접근에서 벗어나 다양한 재료와 방법을 시도한 작품이 많다"며 "평면작업에서도 깊이를 더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이 이번 작품전의 특징"이라고 전한다.

소극적 접근 벗어나 다양한 시도 실험정신과 개성 돋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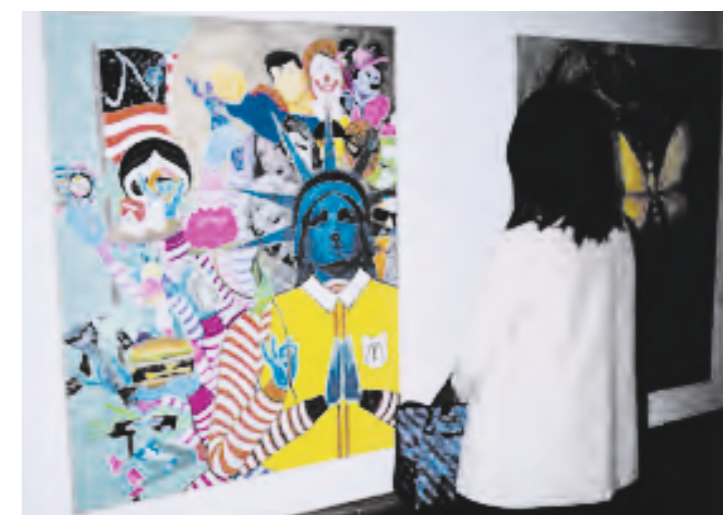
특히 서양화의 한 장르로 실험정신과 개성이 돋보이는 설치미술 작품이 눈에 띈다.

못갈이와 벽면에 진열해 놓은 패셔너블한 의상과 쌓아놓은 비디오 테이프 등으로 마치 잡화점을 연상케하는 최준혁(서양화4) 군의 'FT 씨의 가게', 독특한 의상과 그 의상을 입은 인물이 표현된 사진을 진열한 정영(서양화4) 양의 '만나, 만나, 만나'는 관객의 흥미를 유발하기에 충분하다.

이외에 공중의복을 입은 어머니를 모델로 한 박정림(한국화4) 양의 '인연순, 52세', 7cm 아크릴 판에 그려 평면이 아닌 공간의 느낌을 표현해낸 성덕환(서양화4) 군의 'united', 전쟁과 테러, 기아와 난민, 분단상황 등으로 나타낸 현실세계와 부처의 극락세계를 대비시킨 지상스님(불교미술4)의 '감로왕도' 등도 시선을 끄는 작품들이다.

하지만 이처럼 다양한 주제와 특색을 담고 있다는 점이 역으로 일관성 있는 테마가 없다는 점으로 비춰질 수 있어 기존 전시회 관람에 익숙해진 일반 관객에게는 다소 산만하게 다가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양하고 특색어린 작품 하나하나에 졸업준비생들이 기울인 땀과 추억의 흔적이 오롯이 느껴진다는 것, 그것이 이번 졸업작품전을 빛나게 하는 이유가 아닐까.

한보라 기자
hviolet@dongguk.edu



한 관람객이 이승민(서양화4) 양의 'made in USA?' 를 감상하고 있다.

매체비평

게임 편

짱

“만화의 기본 열개 바탕으로 게임만의 새 옷 입혀야”



만화를 게임으로 재구성해 화제가 된 게임 '짱'.

매스 미디어는 현대의 주술사다. 사람들은 매스미디어의 신막을 받아 꿈을 본다. 현실에서는 상상도 못할 장면들

이 스크린에 펼쳐져 눈을 흘린다. 하지만 가끔은 미처 생각할 틈도 없이 눈앞에 펼쳐진 것을 그대로 따라 받아들이는 것이 쉽다. 화려한 영상 시대에 만화책이 살아남는 건 여유를 주기 때문이다. 컷 사이 사이 공백에서 사람들은 끊어진 이야기를 스스로 이어나간다. 상상의 시간을 통해 이야기는 몸속으로 녹아든다.

게임은 만화처럼 여백의 시간을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마우스에서 손을 떼면 아무런 긴박하던 순간이라도 게임은 멈추고 충실하게 기다린다. 독자의 상상이 여백을 채우는 순간에야 만화책이 완성되는 것처럼, 게임 역시 게이머가 손을 움직여 진행해 나갈 때 비로소 완성된다. 만화와 게임을 엮어 같은 꿈을

공유하려는 시도가 많은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월소스 멀티유즈'나 '미디어 믹스'가 일반화된 일본에서도 게임이 만화의 세계를 제대로 표현한 일은 많지 않다. 대부분은 그저 캐릭터가 같다는 것에만 만족해야 하는 팬 전용 게임에 불과하다. 하물며 아직은 시도조차 별로 없는 국내에서 만화와 게임의 성공적인 결합을 찾아내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이번에 만화 '짱'이 두번째로 게임화되었다. 주인공이 여러 지역의 짱들과 싸운다는 만화의 기본 열개는 게임에서도 마찬가지로 완성이 쉽다. 단순로운 공격, 여기저기서 발견되는 버그 등 서둘러 만들었는지 많은 부분이 완성되지

못한 느낌이다. 하지만 동영상, 종간의 컷 신, 대사까지 최소한 만화에 대한 애정이 없는 만들기 어려운 분위기를 살려내는 데에는 성공했다.

이 게임을 만든 사람들은 만화를 게임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다. 만화에 등장한 인물이 나와 만화의 여러 장면을 게임 속에 표현하는 것에만 그쳤다면, '짱'은 평범한 완성도 낮은 게임에 불과했을 것이다. 하지만 게임 '짱'은 새로운 서브 스토리를 만들어 냈다. 만화 '짱'을 좋아했던 사람이라면 그 서브 스토리가 궁금해서라도 게임의 약점을 이해하고 넘기는 수밖에 없을 정도다.

서브스토리를 더 근사하게 표현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일

단 만화의 인기만을 등에 업은 안이한 기획은 아니었다.

게임 '짱'은 만화를 게임으로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시한다. 그건 만화에서 경험한 즐거운 꿈을 게임이 이어받는 것이다. 우선 만화에서 사람들이 좋아했던 핵심을 잡아낸다. 그리고는 만화에서 그랬던 그대로 단순히 반복하는 게 아니라, 게임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옷을 입혀야 한다. 그러니까 게임 속에서 새로운, 하지만 익숙한 무언가를 맛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짱'의 도전은 성공적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루지는 못했어도, 이뤄야 할 것이 무엇인가는 보여주었다.

박상우
게임평론가

전용극장의 막이 올랐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용극장'이란 꼬리표가 붙은 문화공간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뮤지컬만 하더라도 지난해 극단 신사에서 비록 작은 규모이지만 일산에 뮤지컬 극장을 개관, 운영중인데 이어 뮤지컬 기획사 에이콤에서도 분당에 대형 뮤지컬 극장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

왜 '전용'인가

전용극장이란 일정기간 동안 특정 장르 또는 작품만을 지속적으로 무대에 올리는 극장이라고 정의해도 좋을 듯하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통공연을 위주로 하는 삼청각이나 마임과 인형의 본고장인 춘천의 인형극장이 전자에 해당한다면, 이미 대표적인 문화상품으로 자리잡은 난타 전용극장과 세종문화회관의 델타 구아다룰이 후자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후자는 상설극장의 개념에 더 잘 맞다고 할 수 있는데, 최근 건립되었거나 계획중인 전용극장이 대부분 이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올 상반기 성황리에 공연을 마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과 같은 흥행성 있는 단일 대형공연에서 전용극장의 필요성을 인지할 만한 관객층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전용극장에서 관람수익이 동일한 장르의 다른 공연으로 작품을 전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서구 문화선진국의 경우 오페라,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에 걸친 전용극장은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다. 뮤지컬 같은 흥행 장르의 경우는 뉴욕 브로드웨이나 런던 웨스트엔드처럼 수많은 전용극장이 한 곳에 밀집되어 있기도 하다. 우리의 경우도 100~

200석 규모의 크고 작은 대학로 극장을 전용극장이라 불러도 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특정 장르나 작품의 장기공연을 위한, 500석 이상 중극장 규모의 전용극장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문화공간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은 사실 개관 당시만 하더라도 오페라와 발레 전용공간으로 출발했지만 그동안 뮤지컬, 악극, 어린이연극 등 타 공연 장르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또한 애초부터 전용극장의 상대적인 개념인 다목적공연장으로 출발한 세종문화회관, 국립극장 그리고 민간 극장인 LG아트센터에서 전용극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상하기는 힘들다.

장점과 단점

그렇다면 이와 같은 현상을 어떻게 바라볼 수 것인가. 우선 특정한 장르의 공연이 일정 수준 이상의 관객을 끌어모을 수 있을 만큼 자생력이 생겨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전용극장의 존재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장르의 저변확대와 관객 증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익성도 개선될 것이고, 수익의 재투자가 가능하게 되어 해당 장르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다. 관객의 관점에서도 자유롭고 폭넓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언제든 극장에 가면 보고 싶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는 것은 관객을 흡입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유인요소인 것이다.

공연예술분야에서 전용극장은 이상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반드시 긍정적인 측면만을 가진 것은 아니다. 전용극장은 기본적으로

장기공연을 그 기본전제로 한다. 장기공연은 전용극장의 운영과 존립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오페라와 발레만을 공연한다고 가정한다면, 아마도 연중 극장 가동일수는 급격히 떨어지고 다른 장르를 선호하는 관객들은 규모가 작은 다른 공연장으로 발길을 돌려야 할 것이다. 우리와 같이 하드웨어인 극장과 소프트웨어인 공연이 장르나 규모, 관객수 등 여러 측면에서 극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경우 전용극장만을 지나치게 고집하기에는 무리수가 따르는 것이다. 이것이 전용극장이 우리 공연계에 쉽게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전용극장을 표방하고 출발한 극장이 타장르의 공연을 하나 둘씩 수용하면서 조금씩 그 의미가 퇴색하고 있거나, 특정 분야 가령, 뮤지컬이나 어린이극 같은 특정 분야에서만 전용극장이 논의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반듯한 전용극장을 갖는다는 것은 공연예술가나 극장 관계자들에게는 하나의 꿈이다. 전용극장이 속속 탄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일이다. 공연예술이 특화되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현상이기도 하거나 향후 더욱 자생력을 갖춰갈 수 있는 자양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계층의, 취향이 서로 다른 관객이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장르의 전용극장으로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남진
메타기획컨설팅 문화정보사업팀장

이런 곳도 있어요

인형극 전용극장

국내 최초의 인형극 전용극장인 춘천인형극장 '물리 나라 꿈의 나라'. 지난해 개관한 춘천인형극장은 지하1층, 지상3층에 497석의 실내객석과 200석의 야외공연장을 갖췄으며 연습·제작공간, 견학코스 등의 부대시설도 마련돼 있다.

오는 23일까지 '춘천인형극제2002' 인기가작 초청공연 두 번째 행사로 마법과 인형극단의 '왕자와 거지'를 공연한다.

서커스 전용극장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유랑극단인 동춘서커스단은 2004년 3월 까지 서커스 전용극장을 짓는다. 동춘서커스단과 부천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서커스 공연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연면적 5천여평인 공연장 안에는 1천 500석 규모의 주공연장, 마술공연 등을 할 수 있는 보조공연장, 서커스 아카데미, 동물묘 기장, 관객 체험실, 분장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퍼포먼스 전용극장

주류와 비주류, 순수와 대중의 크로스오버를 통해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새로운 공연형식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설립된 국내 유일의 퍼포먼스 전용극장 '씨어터 제로'.

홍대 앞 피카소거리에 위치한 이 극장의 공연은 전위예술 위주로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열린다. 관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스탠딩 공연으로 진행되는 이 극장은 다른 공연장과 달리 음료나 술을 들고 입장이 가능하다.

또한 조명이 객석을 비추면 자신의 생각을 대사형식으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관객·배우 하나되는 마당놀이만의 공간



지난 여름 오페라의 유령, 레미제라블 등 외국의 유명 뮤지컬 바람이 우리나라 공연계를 휩쓸었다. 그 뒤에는 원작의 명성과 함께 뮤지컬 전용극장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마당놀이는 변변한 공연장 하나 없이 '저울용 계절상품'으로 취급받아 왔다.

이는 전용극장의 부재에서 그 근본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연장은 무대와 관객석이 마주보는 단면적 구조이다. 때문에 무대 사방이 트여있어야 하는 마당놀이의 특성 상 공연장이 아닌 실내체육관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또한 뮤지컬 전용극장의 경우 관객석이 층별로 나뉘어 프로시니엄 극장이므로 관객의 참여가 요구되는 마당놀이의 공연장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기적인 공연을 치르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고 다른 문화분야에 비해 더딘 발전을

해왔다. 그렇기에 마당놀이의 구성진 소리와 흥겨운 몸놀림을 일년 내내 감상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마당놀이 전문 배우로 인지를 굳힌 윤문식, 김종열, 김성녀 씨가 소속된 극단 미추(대표=손진책)가 3억원을 들여 '마당놀이 전용극장'을 개관한 것이다. 이는 큰 수익을 내거나 화려한 조명을 받지 못해도 묵묵히 마당놀이를 지켜온 이들의 열정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 볼 수 있다.

국립극장 내에 자리잡은 2천석 규모의 이 극장은 지난 9일 '마당놀이 심정전'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외형은 옛 서커스 장을 연상케 하는 천막극장이며 내부에는 무대답지 않은 명석 한 장과 관객석답지 않은 낮은 의자가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이를 초라하다고 단정지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극장 한가운데 위치한 무대와 사방으로 위치변경이 가능한 의자 덕분에 어느 자리든 최적의 조건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무대가 낮아 관객들이 부담 없이 배우들과 어우러져 난장판에 동참할 수 있다. 특히 야외무대인 것을 감안해 난방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것과 마당놀이 신명을 한껏 살리기 위해 극장 입구에 전통음식 장터를 마련한 점도 돋보인다.

마당놀이 전용극장은 마당놀이를 정기적으로 무대에 올릴 수 있는 마당이자, 전통문화를 보다 전문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전용극장의 개관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마당놀이, 앞으로 보다 많은 창작극을 통해 다양한 세대에게 인정받는 대중문화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김하나 기자
selllyone@dongguk.edu

메아리

역이용정책

▲지난 대구·경주 간 국도 공사에 의해 훼손된 금척리 고분군.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는 뒤늦게 정화 작업에 착수했으며 고분 보호를 위해 해당 지역의 민가를 이전시켰다. 당시 주민들은 정부의 실책을 아쉬워하면서도 고분군의 원만한 보존을 기대하는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그 후 금척리 고분군은 1년에 1번 벌초하는 수준의 미흡한 관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당시의

정화 작업이 유적 보존의 의미를 망각한 일회성 정책이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최근 들어 지방화 시대 구현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각종 영화제, 지역 축제 등 다양한 지역 행사가 열렸다. 정부가 지역문화 행사의 양적 증대와 수도권으로부터의 분권을 이뤄내려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역민 또한 행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성공을 기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난 행사들이 '얼마나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식의 목소리가 높았다. ▲역사를 자랑하는 일부 지역행사가 내실 부족으로 규모를 줄이거나 개최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최근 집중되고 있는 신규 행사가 행사 의의를 중시하기보다는 정부의 돈벌이성 정책으로 흐를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 결국 현실로 드러

나고 말았다. 문화산업분야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지방 행사의 대부분이 천편일률적이고 시장 경제적 속성을 강조하며 정부 및 주도적이라고 후평하고 있는 것이다. ▲금척리 고분군 보호 사업은 고분 파괴가 행해진 당시 활발하게 이뤄졌으나 정부가 보다 지명도 높은 유적을 집중 개발해 관광객을 확보하겠다는 정책으로 선회하면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각종 지역 행사 또한 정부 주도 정책 때문에 당초 의도한 지역 발전도 모는 실현되지 못했다. 지역민은 정부의 상성성을 후회해 주는 존재가 아니다. 정부는 이익 추구와 무의미한 정책 양산에 급급하지 말고 지역민을 위한 진정한 정책 추진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형진우 편집부장
premier@mail.dongguk.ac.kr